

-제100회 총회주제해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 : 18-21, 창 33 : 1-4)



2015~20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출판사

이 책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0회 총회주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의

해설서로 출간된 것이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인쇄 ·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10일 · 발행

편 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주제연구위원회

발 행

발행인 · 채 형 욱

발행소 · 한국장로교출판사

주소 · 031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별관)

전화 · (02)741-4381/(F) 741-7886

등록 · No.1-84(1951. 8. 3.)

Printed in Korea

값 4,000원

2015년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회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분단된 민족의 갈등을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화해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70일 특별기도운동을 전국교회와 함께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따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나타나는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고조되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져 사회 법정에까지 서게 되어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사회,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요셉의 이야

기 등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권면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교회와 세상에 살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바라시는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분쟁으로 인해 갈라지고 찢긴 교회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화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단된 한반도에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 교단은 이러한 사명을 바라보면서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100회 총회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화해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하니, 본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화해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회기 동안 총회주제를 정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 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여 「총회주제해설서」를 만들어 주신 총회주제연구위원장 노영상 목사와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총회주제연구위원들과 함께 「총회주제해설서」를 발행하기 위해 수고한 총회직원들과 한국장로교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총회와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채영남 목사

본 교단은 2015년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총회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갈등의 상대 개념인 ‘화해’가 금번 총회주제입니다. 이는 갈등을 그치고 화해하여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강조하는 주제로, 남북한의 분단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한 적절한 주제로 생각됩니다(마 12 : 25).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합니다(엡 2 : 16). 하나님은 화해를 통해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지만(고후 5 : 19),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고후 2 : 10-11).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종종 갈등과 다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힘들게 싸울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벧전 4 : 7).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들이 정신이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기될 때가 적지 않은 바, 그러한 다툼을 야기한 기저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육은 우리를 나뉘게 합니다(고전 3 : 3).

신앙의 사람은 모든 것을 여유 있는 눈으로 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원통하고, 부정적이며 경쟁적으로 그리고 성급한 마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상대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 반목하기 쉽습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가련하게 생각되며(엡 4 : 32), 이해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은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띠입니다(골 3 : 14).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의 갈등은 의로움과 진실에 기반을 둔 소통을 통해 풀 수 있지만, 욕심과 미혹하는 영에 의해 정신이 혼미한 사람과의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계 12 : 9). 이러한 사탄의 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및 선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결집을 통해 이기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엡 4 : 3, 6 : 10-18). 말하고 설득한다고 그들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논리로 따지고 싸워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눅 6 : 28).

얼핏 보면 우리의 갈등이 개인 간의 다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이 보면 볼수록 그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갈등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이며, 그 뒤에 구조화된 세력과 악한 영의 힘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엡 6 : 12). 우리는 갈등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것의 깊을 뿌리를 감지하게 되며 그런 갈등을 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큰 악의 세력인 사탄과의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엡 6 : 12).

이에 본 주제해설서는 우리의 갈등 해결은 총체적이며 영적이고 종말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 저변의 가정공동체 문제, 사회와 민족공동체 내의 갈등, 우주와 전 피조물 내의 갈등, 교회공동체의 문제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제반 관계의 온전함으로서의 하나님의 살롬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사 9 : 6-7). 이 모든 갈등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영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새로운 평화의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참다운 갈등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종말적 평강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요 19 : 30). 사탄을 무저갱에 묻지 않고는 궁극적 평화와 화해의 천년 왕국이 임하지 않습니다(계 20 : 3, 10).

우리 주제 연구자 모두와 본 교단 총회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

는 제100회 총회주제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가 보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총회주제해설서」의 전체 방향을 정해 주신 채영남 총회장,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조재호 총회주제연구위원회 서기와 위원들, 준비모임 시 강의를 해 주신 이형기 교수와 이홍정 사무총장, 실무를 맡았던 변창배 국장과 이연일 과장 외 총회 직원들, 그리고 본 해설서를 출간해 주신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채형욱 목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9월
총회주제연구위원장 노영상 목사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언 _ 3

발간사 _ 5

제1장 제100회 총회주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정하며 | 노영상 / 10

제2장 구약성서의 화해 | 천사무엘 / 19

제3장 복음서의 화해 | 김우철 / 28

: 마태복음 5 : 24을 중심으로

제4장 서신서의 화해 | 류영모 / 36

: 십자가 화해의 사명과 직분

제5장 화해의 조직신학적 이해 | 김승학 / 44

제6장 화해의 교회사적 이해 | 임희국 / 51

제7장 가정공동체와 화해 | 김예식 / 58

: 목회상담적 접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제100회 총회주제해설서

제8장 교회공동체와 화해 | 한재엽 / 66

제9장 사회공동체와 화해 | 조재호 / 73

제10장 민족공동체와 화해 | 권용근 / 81

제11장 생태·우주공동체와 화해 | 전중식 / 89

제12장 화해의 성찬·성례전 | 주승중 / 98

제13장 화해를 위한 갈등 해결 방법 | 오상열 / 112

주제설교 1.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 채영남 / 122

주제설교 2. 사랑으로 화해를 이룬시다 | 정현교 / 130

역대 총회주제 _ 135

제1장

제100회 총회주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정하며

| 노영상 목사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주제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1912년 9월 평양의 장로회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열렸었다. 2015년은 본 교단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는 해인 동시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교회에게나 민족에게 큰 의의가 있는 해이다.

뜻깊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면서 총회주제연구위원들은 금번 총회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심사숙고했다. 총회는 제96회 총회부터 제99회 총회까지 지난 4년간 “그리스도인, ()”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주제를 연속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그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처음 총회주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제100회 총회 총회장의 직무를 맡을 채영남 부총회장이 총회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부총회장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금번 총회주제를 ‘화해’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먼저 오늘날 우리 국가와 사회, 교회가 너무 큰 갈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에 화해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교회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부총회장은 두 번째 이유로, 본 교단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2012-2022)’에 대해 언급하였다. 총회가 10년의 기간 동안 치유, 화해, 생명의 세 가지 주제를 총회 정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정하였으므로, 제100회 총회주제가 이 운동과 연결점을 갖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8월 21일 한국 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 통합실장은 심각한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 관리기본법을 제정,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며 “사회 갈등 비용을 절감해国力 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총회에서 교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재판국의 보고가 없는 때가 없으며, 교회 내의 분쟁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법정에서 공방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양극화된 이념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교파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 남북한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가정 내의 갈등, 학교 내의 갈등, 기업 내의 갈등, 이익집단 간의 갈등, 인간과 여타 생명체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이 국가와 인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총회주제연구위원회는 이 같은 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갈등의 상황을 검토하며, 일종의 기도문 형태로 주제를 정하여 강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내자는 의견에 따라 제100회 총회의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로 결정하였다.

2.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와 주제성구

- 고린도후서 5 : 18 - 21, 창세기 33 : 1 - 4

성경에 나오는 화해와 연관된 단어로는 화목, 평화, 화평, 평강을 찾아볼 수 있다. 각 단어의 뜻은 조금씩 다르다. 화해란 “싸움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란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화평이란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의미한다. 평강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언급한다.

화목이나 평화, 화평, 평강 같은 단어들은 싸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화해는 싸움을 멈추고 그러한 갈등의 상태를 풀어내는 과정을 나타낸다. 화해라는 말은 정태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풀어내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총회주제연구위원회에서 주제를 정할 때, ‘화해’와 ‘화목’ 중 어느 단어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논의를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보다는 갈등의 상태를 넘어서는 중재의 과정이 더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서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이겨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소중함을 강조하는 ‘화해’를 선택함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싸움의 상황을 중재하여 보다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갖게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며 총회주제연구위원회는 핵심 주제 성구를 고린도후서 5 : 18 - 21로 정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 : 18 - 21)

위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reconciliation’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화목보다는 화해라는 번역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역개정판에서 ‘화목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되는 바, ‘be at peace with ~’와 ‘reconcile’이다. 전자의 번역의 예로는 로마서 12:18이 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be at peace with everyone”으로 번역되었다. 우리말로 옮기면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라는 뜻이 될 것이다.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평화를 말하는 ‘에이레네’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고린도후서 5:18-21 사이에 여러 번 나타나는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카탈라소’로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reconcile’로 번역된다. 헬라어 동사 ‘카탈라소’는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뜻하는 동사로서, 어떤 때는 ‘변화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필자는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화목’보다 ‘화해’로 번역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화목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여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로 변화한다는 역동적인 변화가 덜 강조된 단어이므로 ‘카탈라소’는 화해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화해는 화목보다 신학적인 용어로 더 많이 활용되었다. 존 칼빈(John Calvin)과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학에 화해라는 개념이 부각되어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1967년도 신앙고백이나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에서도 화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본 교단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을 추진하기로 정한바 있는데, ‘치유(healing)와 화해(reconciliation)’의 개념은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총회주제연구위원회는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이형기 교수와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를 초청하여 각각 1967년도 신앙고백과 세계교회협의회 문건에 나타난 화해의 의미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에 나타난 화해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연찬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해의 신학적 의미를 더 풍성히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어 총회주제연구위원회는 구약의 주제성구로 창세기 33:1-4의 말씀을 정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창 33 : 1-4)

야곱의 형, 에서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여 야곱을 죽이고자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를 만났지만,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울며 화해하였음을 그리고 있다. 갈등하여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서로 화해하는 본문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화해의 장면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는 이 구절을 주제성구로 정하였다.

창세기의 이 본문은 가정 내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전형적인 본문이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그 둘 사이의 갈등 생성 과정부터 화해하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비교적 길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삶은 갈등의 관계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해소하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야곱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소해 주시리라 믿는다. 본문은 그 갈등 해소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 강조한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화해함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야곱은 이러한 에서와의 갈등 중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의 전 존재가 변하여 새롭게 되었음을 창세기는 전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 전 피조물공동체 속에 화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가족 간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 화목한 교회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서로 소송하고 반목하는 교회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첨예화되어 폭발 직전에 있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나뉘어 동족상쟁의 전쟁을 치렀으며 지금도 총칼을 맞대고 대치하는 중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전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는 바, 이제는 자연이 더 견디지 못하고 인간을 향해 공격해 오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우리 삶의 여러 갈등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해의 전령과 사신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화해는 다양한 차원들을 내포하는 바, 종교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적이고 국제적이며 생태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화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화해의 사역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먼저 각각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화해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화해에 대한 조직신학적이며 교회사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이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영성과 훈련이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한 예배와 예전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특히 기독교의 성만찬 예전에 나타난 화해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3. 화해의 목표로서의 하나님 샅롬

화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갈등과 반목의 반대말로 여러 단어들을 떠올리게 된다. 화목, 화평, 평화, 평강 등이다. 이런 우리말의 단어들은 영어로 보통 ‘peace’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히브리어로는 ‘샅롬’으로 표현되는 바, 화해란 갈등과 반목의 상태가 샅롬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화해의 과정에 대해 잘 알려면, 이 샅롬의 상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샅롬이란 ‘제한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wholeness)’을 의미한다. 즉,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일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적 관계, 자신과 자기 스스로와의 심리적 관계 등 모든 관계가 온전하여졌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샅롬이라 일컫는다. 내 주변의 존재들과의 바른 관계로서의 정의가 평화의 전제가 됨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샅롬의 관계는 일차원적인 하모니로서 추구되지 않는다. 야곱과 에서의 샅롬의 관계는 그 양자 사이의 화해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야곱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기 스스로와 화해하며, 자신의 처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형인 에서와의 관계도 풀게 되었음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샅롬이란 어느 한 부분만의 치유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

니며, 제반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구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다. 서로 총대를 겨누고 있는 남북의 관계가 화해의 과정에 들어가려면 이 양자만의 관계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우리 주변의 열강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 곧 남한 내의 양극화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고,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로서의 자아의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의 화해 과정은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어느 문제를 단선적으로 파악해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가정에서의 불화 문제도 그렇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한 가정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문제, 남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문제 등의 다차원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전체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야는 이 같은 세계적인 살롬의 모습을 이사야 11:1-9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이 본문에서 살롬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이며, 둘째는 정의로운 인간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주 내의 생명체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사는 생태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사야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및 자연과의 제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롬이라고 표현하였다.

온통의 모든 것의 조화 속에 살롬이 성취되며, 그 살롬은 온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엡 1:2)라는 인사말을 종종 하곤 했다. 그는 온전한 평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그의 수신자들에게 말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 29:11).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삿 6:24). 살롬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현존한다. 에베소서 2:14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

리의 평화가 되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종말론적인 평화이다. 그 종말은 아직 임하지 않은(not yet) 것으로서의 종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already) 이곳에 현존하는 종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화해의 사역은 성취된 모습으로서의 정태적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지속되는 생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말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미래적인 종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미래의 평화는 오늘의 평화를 허위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고발하며, 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한다. 이러한 미래적인 종말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러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평화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의 세계 속에만 있는 평화 아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실현된 평화이다. 기독교의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평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동시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부여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이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의 책임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본 교단 제100회 총회의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고 정했다. 이번 2015년과 2016년에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 화해에 앞장서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림을 이루어 나가는 화해의 전령과 사신이 되길 바란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갈등과 반목의 나무를 캐내고, 평화의 나무를 심게 하소서.

시기와 질시를 거두어 내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사이에 놓인 담을 헐어낼 수 없지만,

주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서로 갈리고 찢겨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평화의 희망을 보게 하소서.
길은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행진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남과 북이 대동하여 어우러지고, 동과 서가 웃으며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빈부귀천으로 나누인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얼굴색으로 서로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아내와 남편이 다시 만나며, 갈라선 형제들이 새롭게 모이게 하소서.
분쟁이 있는 교회와 직장에 화해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온 땅에 화해의 따스함이 비추게 하소서.
거짓으로 위장한 평화가 물러나고,
신앙과 정의 위에 세워진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서로 가장하고 불렀던 거짓된 평화의 노래를 멈추고,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과 참 화해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소서. 우리로 서로 화해하게 하소서.

제2장 구약성서의 화해

| 천사무엘 목사 |

화해(和解/reconciliation)란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나온다. 개역개정판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신약에서만 단지 두 번 나오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멈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눅 12 : 58 ; 행 7 : 26). 새번역 성경에는 열일곱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네 번, 신약에서 열세 번 나온다. 구약에 나오는 네 번 중 세 번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에 대해(삼상 29 : 4 ; 삼하 10 : 19 ; 대상 19 : 19) 그리고 한 번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에 대해(욥 22 : 21) 사용되었다. 우리말 성경에 화해라는 말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이 ‘화목’(和睦/peace/harmony)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새번역 성경의 예를 들면, 화목(잠 16 : 7 ; 17 : 1), 화목제물(peace-offering ; 레 3 : 3 ; 신 12 : 6), 화목제(레 3 : 1 ; 19 : 5 ; 암 5 : 22) 그리고 화목제사(레 7 : 29 ; 민 15 : 8 ; 수 22 : 23) 등이다.

화해와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 화목은 화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화목은 화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는 싸움이나 불화, 갈등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평화와 사랑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전제되어 있다. 화목은 갈등을 전제하지 않지만, 화해와 관련하여 사용할 때 화해의 결과인 평화와 사랑의 관계 지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말 구약성경에서 화해란 단어는

별로 없지만, 이에 대한 사고는 구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화해의 개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화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이다.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잘못된 경우를 회복하거나 바르게 하는 데 화해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1.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형성되었다(창 1-2장). 그 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그 좋은 관계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깨어졌다.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지시의 거부는 타락기사(창 3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창조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이것은 창조세계가 평화를 상실했으며,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물과도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때문에 생긴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관계가 화해되어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성서의 가르침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개념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다. 시내 산 계약 혹은 모세 계약으로 불리는 이 계약은 계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새번역, 출 19 : 5-6a)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나 계약의 조건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하여 속죄제사(sin-offering)를 지냈다(레 4 : 27 - 35). 제사장들을 통하여 행해진 이 제사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행위였다(레 4 : 35 ; 시 85 : 4). 따라서 속죄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항상 용서와 화해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출 34 : 6 - 7 ; 호 2 : 16 - 22).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렘 31 : 31 - 33 ; 겔 36 : 6 - 38).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제의적인 화해 의식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했다. 단순히 제의적으로 속죄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행위는 잘못되었으며,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바꾸는 윤리적 행위가 없는 속죄제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암 4 : 1 - 13).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 : 21 - 24)

이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 속죄제사와 함께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이 화목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신약성서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단순히 예배를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교회적으로, 사

회적으로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갈 때 가능하다. 정의로운 행위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2. 인간과 인간의 화해

창세기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야곱과 라반(창 31장), 야곱과 에서(창 33장)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창 45장)에 관한 이야기 등이다. 이 이야기들은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다. 그러한 갈등의 원인은 재산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창 31장),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형제를 속이는 행위(창 33장), 자식들 간의 질투를 유발하는 부모의 편애(창 37장) 등이다. 이 이야기들은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인간과 인간이 화해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있었다. 즉, 화해에 앞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창 31 : 3, 24 ; 32 : 30)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창 31 : 29),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행동(창 42 : 21) 등이 있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인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태도 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별거벗겨진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파악할 때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은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 경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 즉 야곱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야곱이라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는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남 없이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이다. 압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형이 두려워 종들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일행의 맨 나중에 따라갔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에서에게 인도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

지고, 형에게 나아가 화해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 화해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화해의 대상인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을 마치 형의 종처럼 여기면서, 일곱 번씩이나 절을 하고, 에서를 자신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으며, 형의 너그러움을 구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재산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재산을 형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버릴 때 가능한 행동이었다. 즉,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성경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화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화해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집트로 팔려 가서 노예가 되었다. 형들은 가해자요, 요셉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종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 : 5)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 45 : 8)

요셉은 과거의 일로 인해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요, 구원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요셉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고 화해를 시도했다(창 45장). 피해자가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극복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삶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비전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화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

에서 재정립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평화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갈등과 불화라는 아픔의 역사를 평화를 위한 역사로 바꾸는 것이며 분열된 공동체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진정한 화해는 서로가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 가능하다. 화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화평을 위하여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지만 화해를 위하여 그 힘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창 31 : 29 ; 32 : 6). 예를 들면, 에서는 야곱과 싸워서 이길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해치거나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타향살이를 마치고 귀향하는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애의 회복을 위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화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용서나 용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편이 모두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힘과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 이루어진다. 특히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화해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3. 인간과 자연의 화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기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조물인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창 3 : 14, 17)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연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은 특정 동물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땅은 인간이 땀 흘린 만큼의 소출을 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창조질서를 거부한 인간의 타락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오만에 있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는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불의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이 없이 물질을 차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0계명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 역시 탐욕과 불의가 인간과 물질의 관계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 대신 물질을 숭배할 때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깨어진다. 물질만능주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잠 18 : 11)라는 말씀은 물질만능주의자인 부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결과인데, 이는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파괴 본문들과는 달리, 예언자 이사야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 에덴동산과 같은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즉, 창조세계에 공평과 정의가 있을 때 땅이 평화롭고 인간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 것이라 선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새번역, 사 32 : 15 - 17)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떼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새번역, 사 11 : 5 - 9a)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나타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즉,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구현되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없을 때 자연은 착취당하고 고통당하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을 때 자연도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요소가 된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인간의 정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회복하고 인

간에게 풍요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화해란 정의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연을 누리며 사는 평화의 삶이란 정의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4. 화해의 사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화해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간과 인간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화해도 인간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구현되는 정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화해의 사역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괜찮다고 하면서 덮어 두는 것도 아니다(렘 8 : 11).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화해의 책임자들은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잊어버리는 것이 치유라고 말하며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화해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화해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실현되는 정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화해의 사역은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갈등과 불화는 바르지 못한 것, 즉 불의로 인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화해를 위해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가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는 사회정의, 경제정의, 정치정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바른 신앙의 정립과 교회의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부적절한 운영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행동들이 격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화해의 사역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적 갈등과 아픔을 신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미래를 위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사역은 새로운 신앙적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요,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

로 협력하고 연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 연대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로, 화해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불화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은 신앙적인 성숙함 없이는 불가능하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은 성숙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라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화해의 사역은 화해 당사자들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다.

제3장

복음서의 화해 :

마태복음 5 : 24을 중심으로

| 김우철 목사 |

마태복음 5 : 24은 산상수훈에 속한다. 산상수훈은 존재의 복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마 5 : 1-16).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한다. 이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한다(마 5 : 17-20). 이에 따라 존재의 복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계명(매뉴얼)을 하나씩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5 : 24이 속한 구절로 마태복음 5 : 21-26까지의 말씀이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어떻게 새롭고 완전한 지침(수칙)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따라가게 된다.

1. 말씀의 맥락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테두리(울타리)를 치신 말씀이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로 율법은 사람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지침이 되며, 두 번째로 율

법은 사람이 태두리를 벗어날 때, 잘못을 지적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율법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가라고 안내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서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밝히신다(출 20 : 1-2). 이는 곧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율법에 포함되는 십계명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도덕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다. 지침을 따르면 생명의 안전과 평강이 보장되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사망의 불안과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롬 8 : 3).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하게 역사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육신이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믿으며 사는 성도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덕분에 자기 육신의 죄악과 정욕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율법의 요구에 따르게 된다.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고 율법의 지침을 심사숙고하게 된다(롬 8 : 4). 물론 성도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지침을 어기기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급하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은총에 따라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에 따라 살게 된다. 또한 이제는 용서받은 성도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분량에 따라 자기에게 해를 가한 상대에게도 용서의 빈도를 늘리고 용서의 수준을 높이며 용서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

최근 들어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말 한 마디 잘못하는 것이 명예훼손과 같은 심각한 가해가 된다. 심지어 ‘악플’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전근대 시대에 이 땅에 오셨으나 근대기를 지나고 탈근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은 인격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마 5 : 21-26). 인격 살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되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인격 살인죄를 포괄하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 인격 살인죄를 용서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가해와 피해의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잘못해서 피해를 끼친 사람(가해자)에게 손해 본

사람(피해자)이 분노와 비난을 쏟아 내고(마 5 : 22), 이는 다시 가해자의 원망스러운 대꾸로 번져 간다(마 5 : 23). 서로 간에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일이 확산된다. 서로 법으로 정죄하고자 한다(마 5 : 25). 결국 서로 정죄하고 인격 살인하는 데까지 미치게 된다. 사람들이 서로 인격 살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존귀하신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당하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신격 살인의 가해자로 전락한다. 하나님은 그런 가해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시기는커녕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다. 성령은 피해와 가해의 울무에 서로 얽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게 하셔서 그들이 피해와 가해로 얽힌 정죄의 울무를 벗고 용서받고 치유되는 화해의 생명 땅으로 엮으신다.

형제에게 진노하는 것은 형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 정죄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니 함부로 행할 일이 아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놈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칫 지옥 갈 놈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계명의 지침에서 새롭게 알려 주시는 인격 상해와 인격 살인의 위험요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의도하시고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갱신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격 상해와 인격 살인의 죄악을 범했을 때,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쌍방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총 가운데서 화해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총 안에서 쌍방이 화해의 절차를 먼저 밟아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배의 수순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화해의 절차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과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초보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화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 구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격 살인은 더 이상 실수나 경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중범죄이므로 교회는 화해하게 하시는 은혜의 절차에 따르는 것을 반드시 명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격 살인의 죄악으로 정죄당하기 전에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인격 살인은

최소한 세 가지 재판을 받게 된다. 첫째로,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 : 26)라고 하는데, ‘한 푼’은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던 ‘동전(데나리온)’을 가리키는 것으로, 로마의 법정에서 정죄되고 옥에 갇히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격 살인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처벌받는 죄악임을 밝히신 것이다. 이 상황이 연옥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형량이 경감되지 않는 확정 판결임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악은 값을 치러야 한다. 둘째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마 5 : 22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 5 : 22a),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 : 22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심판’과 ‘지옥 불’은 최후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세속 재판과 교회 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무관하지 않고 서로 연동되고 있으니 최상위 재판 판결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직 이런 정죄까지 이르지 않게 되었음을 상황으로 설정하시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 : 24의 맥락이다. 이 상황은 예배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던 때처럼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와 죄악 세력의 예속하에 있지 아니한 상황을 가리킨다. 그들은 더 이상 죄악 세력의 노예가 아니며,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놓여 있다. 유월절을 거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악의 노예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홍해에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칭의의 은총으로 감싸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 반면, 오늘날 개신교회가 처한 딜레마는 이것이다. 그것은 개신교회를 부패집단으로 몰면서 거룩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신교회가 칭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 칭의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개신교회는 성화의 은총으로 화해를 위하여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 : 24은 예수님이 최소한 칭의의 은총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다. 당시에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고, 또한 육신으로는 죄악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의 빛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최소한 예배의 자유가 있었다. 일단 그것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숙고하는 자리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죄용서의 은총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들이고 화해되는 자리이다. 이러한 화해의 자리를 포기하고 지체하다가 세속 재판정으로, 종교 재판정으로, 최후 재판정으로 먼저 끌려가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 : 24이 제시하는 대로, 화해의 예배의 자리가 먼저 선용되어야 할 것이다. 형제와 함께 하는 예배와 친교의 자리가 보전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인격 살인의 현장을 치유와 화해의 자리로 변혁하려고 말씀하신 보배와 같은 지침인 것이다.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5 : 24을 성찬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해야 할 과제로 실천했다고 한다. 교회의 성도의 의로움은 자기 육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총이다(마 5 : 20).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는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선불리 정죄하지 아니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속에 거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화해되는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게 된다(롬 8 : 9-11).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의 지체들로 화해되는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롬 12 : 1-13). 교회의 성도는 주님과 화해되었으니 이제 화해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롬 5 : 9-11).

2. 말씀의 내용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 : 24)라는 이 말씀에서 ‘예물’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뜻한다. 레위기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의 규례를 말씀한다. 돈으로 환전해서 사용하기 이전 방식의 제물을 뜻한다. ‘제단 앞에’는 ‘제물을 잡는 제단 앞에’를 뜻한다. 제사에

부름받은 사람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어 제단에 드리게 된다. 제사의 형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있으니 그것은 제물은 있으나 형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고’는 ‘놓아두고’라는 뜻이다. 진행이 일단 보류되는 것이다. ‘먼저’는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형제와 화해되는 것이다. ‘가서’는 ‘화해되기 위해서 가야 함’을 뜻한다. 가서 만나야 한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화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형제와’는 ‘화해의 대상’이 형제임을 뜻한다. 형제는 가까운 사이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가까웠던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적대적 관계로 변질되어 화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제와 화목하고’는 ‘형제간에 화해하게 됨’을 뜻한다. 가해와 피해의 대립 관계 자체에서 화해의 동력을 찾을 수는 없다. 화해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화해의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화목하고’는 ‘화해되고’라는 뜻이다. 화해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천국의 기업 활동이다. 교회 내 형제 간의 화해가 주님 보시기에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우선 사역이다. ‘화해되고’는 그간 적의에 막혔으나 이제는 서로 간에 품었던 적의를 버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서로를 용인하게 되고 형제간의 사랑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어느 한 쪽만이 화해에 열린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화해에 열린 태도로 임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놀라운 화해의 절차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화해의 은혜로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덕분이다. 화해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따르게 되는 절차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화해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적의가 소멸되고 우의가 돈독해지며 형제(자매)로 화해되는 절차에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화해된다’고 할 때에 이는 인간적인 이원관계 속에서 화해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주님과 삼위관계 속에서 화해되는 것을 말 씀한다. 예를 들어,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부모 앞에서는 화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투고 있는 자녀에게 모두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 셧기 때문이다. 바로 그 부모의 사랑 덕분에 자녀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다툼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다툼 중인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에’는 ‘형제와 화해한 후에’를 뜻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하게 된 것을 강조한다. 자신이 준비했던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몸소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총에 따라 화해되어진 것이다. 이전과 이후가 다

르듯이, 인간적인 조건을 맞추어 화해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화해하게 된 것이니 견고한 화해라고 볼 수 있다. 더 좋은 화해의 은총으로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선불리 정죄하지 않게 된다. 화해의 생활에 솔선수범하게 된다. ‘와서’는 주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됨을 뜻한다. 생활의 제사가 예전의 제사로 승화되는 것이다. ‘예물을 드리라’는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이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뜻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단초가 화해의 제사에 놓여 있다.

3. 말씀의 재현

정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본성은 너무 쉽게 선악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죄악으로, 인간을 타락시켰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마땅히 거쳐야 할 단계를 무시하고 곧바로 정죄의 판단에 이르게 강압한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으로 품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 아니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보게 된다. 덕분에 성도는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화해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또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화해 절차의 지침을 상기하고 그 절차를 소망으로 따르게 된다. 정죄보다 칭의를 믿게 된다.

마태복음 5 : 24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전제한다. 존재의 복을 전제한다. 최근 개신교회의 분란과 폐해를 존재론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분별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란이 번지게 되는 경우보다는 사소한 다툼이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칭의의 은총을 확고부동하게 공유하고서 어떻게 하면 절차적인 성화의 은총에 따를 것인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마태복음 5 : 24의 말씀을 분별의 원리로 보아도 좋고, 행동의 지침으로 보아도 좋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에 사람이 좋은 것만으로는 화재가 진화될 수 없다. 지침에 따라서 재빨리 소화기를 꺼내어 불길을 잡고 신속히 대피할 줄 알아야 한다. 화해의 지침이 되는 성경 말씀이야말로 사소한 다툼의 불씨가 커다란 분쟁의 불길로 비화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내고 구출하는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한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아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화해의 역사하심 속으로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것 역시 좋다. 주님이 복음으로 사는 교회에 화해의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을 숙지하고 따를 때,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분란과 폐해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침을 숙고할 때 외부로부터의 개혁의 요구를 내부로부터의 갱신으로 대처하게 되며 성경대로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4장

서신서의 화해 :

십자가 화해의 사명과 직분

| 류영모 목사 |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 : 18 - 21)

1. 도전의 글 : 화해로의 갈망

2015년은 본 교단 총회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해이다. 이 운동은 세계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적 위기에 함께 대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2013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생명에 대한 관심과 화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모든 지역교회가 함께 치

유와 화해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고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살롬의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때라 하겠다.

본래 한국교회는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태어나,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주변 강대국의 억압과 식민 통치로 인해 신음하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 모든 영역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과 교단의 분열은 한국교회에게 지울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임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치유와 화해의 역사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 내 야기되는 여러 갈등의 극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의 회복을 한 발 더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화해 신학

서신서에 나타난 화해의 신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서신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성서 내 바울 서신은 총 열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를 중심으로 한 화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심화해 가며 화평의 사명을 받은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한다.

이 중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며 쓴 눈물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후서 5:18-21은, 부유한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은사의 발현으로(고전 12장) 부흥을 경험하였던 고린도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하는 교만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 번 복음의 능력을 서술하는(고후 4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본문이다.

이는 실로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봐야 할 신학적 주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급속한 부흥을 통해 거대하고 부유해진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 가는 이 시점에,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을 확산시킬 책임이 있

음을 다시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화해 신학을 3단계(창조론적 화해, 구원론적 화해, 교회론적 화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교회가 화해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화해의 실천적 사명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창조론적 화해 : 이마고데이(Imago Dei), 하나님 형상 회복의 화해

바울은 화해의 신학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로 시작한다. 그는 18절 전 반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라고 피조물들의 존재 자체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께 뿌리가 있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자연스럽게 창조주의 속성을 부여받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 그리고 상호 조화의 관계의 모습을 닮아 있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창조주와 관계한다. 또한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상호간에 조화와 연합을 이룬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세계를 돌보도록 청지기의 사역을 위임받았다. 그들은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들이 청지기적 사역을 온전히 수행함을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세계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되었다.

바르트는 칼빈보다 더 강한 어조로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세계 간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과의 관계적 연합(God with us)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인간은 이 관계의 계약적 동반자(Partner)로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 관계를 손상시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죄로 인한 반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계약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어져서 더 이상 온전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깨어진 형상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수평적으로는 피조물 간의 고립을 초래하게 되었다.

2) 구원론적 화해 : 메시아적 십자가 구원의 화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해했다. 여기서 바울의 화해의 신학은 구원론적 이해를 가진다. 18절 중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하나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화해라는 개념은 바울 신학의 독특한 부분이다. 신약성경에서 화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구원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바울의 글에서만 발견된다. 바울에게 있어 화해의 사역을 시작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화해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이유에 대해서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를 통해서 깨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측면이지 하나님의 측면은 아니라고 말한다. 바르트는 죄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을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그들 가운데 죄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까닭에 바르트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인간은 창조 때의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화해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본연의 존재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인간의 회복은 결국 청지기로서의 기능의 회복을 통한 피조물과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에게 회복은 과거의 존재로 회귀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고후 5 : 17)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바울의 독창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구약성경의 이사야와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초한 내용이다. 신약학자 그레고리 비얼(Gregory K. Beale)은 고린도후서 5 : 14-21과 이사야 44-60장이 상당히 내용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새 창조적 구

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것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회복은 종말론적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사역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를 이루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이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후 5 : 18c)고 설명하고 있다.

3) 교회론적 화해 : 에클레시아(Ecclesia), 화해와 생명공동체

화해의 직분을 다루면서 바울의 화해의 신학은 교회론적 이해로 넘어가게 된다. 바울은 성도들이 재창조를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를 ‘그리스도 안(in Christ)’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상호 간의 연합을 경험한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의 신성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의 인성은 우리 안에 참된 인간성(Imago Dei)을 보게 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죄성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죄악 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나, 참된 인간은 타인과 만남을 갖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너’를 또 다른 ‘나’로 인식)한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Being)적 공동체인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수행해(Doing) 나가는 실천적 공동체로 생각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은 교회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다. 몸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여진 집합체이며, 하나의 목표와 지시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여 나가는 유기체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행하셨고 우리도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참은 수동적인 일방적 지시와 기계적 복종의 형태가 아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

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동참한다. 19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사역을 고린도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롬 5 : 8)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사역의 동참은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인 것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지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발적 참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가 된다.

신-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성도들 개개인 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다. 바울은 20-21절에서 ‘대신’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한다. 21절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는 화해의 대리자가 되었고, 20절에서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향한 화해의 대리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자라는 의미는 조력자를 넘어서 우리가 화해사역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필요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갈등을 해소하고 반목을 종식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20절 후반절의 바울의 어조는 단호하게 ‘화목하라(καταλλάγητε)’라는 명령형으로 쓰였다. 단순히 계약의 종속자(Follower)가 아니라 계약의 동반자(Partner)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의 화해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Mission)이다.

3. 맺는 글 : 십자가 화해의 사명과 직분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5 : 18-21에 나타난 화해의 3단계적 분석을 통하여 창조론적 화해, 구원론적 화해, 교회론적 화해의 신학을 살펴봄에 바울의 화해 신학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서의 화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해의 사건을 통하여 에클레시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화해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화해자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교회

가 어떻게 화해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해자로서의 실천적 질문에 답을 가져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한국교회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만큼이나 서로 간의 일치와 연합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은 한반도 복음화에 협력하여 커다란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선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대처하면서 복음의 정착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오늘날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교회 안팎으로 산재되어 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앞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간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와 같은 보편적인 신학적 진리를 수용하고, 상대방에 대한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는 다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노력하고, 교파의 이익보다는 복음이 세상에 가져다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전도서 4:12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구원의 개념은 주로 영혼구원의 측면에서만 이해되었다. 인간의 원죄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을 속죄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약속받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구원의 개념은 전인격적인(영혼과 육체) 구원을 강조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는 인류와 창조세계 간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반목하는 개개인들과 집단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선포하여 상호 간에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상실하였던 피조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재수행하여 그리스도와 온 인류 및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걸친 화해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골 1:20)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어
진 화해자로서의 사명(Mission)과 직분을 고취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다
시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모든 그리스도인
들은 그의 대리자이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에클레시아적 화해공동체가 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기호에 맞추어 교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선도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의 밑바닥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성공지상주의의 정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인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주의적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화해라면 교회의
모든 초점을 세상 가운데 화해를 전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선
교적 사고를 토대로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한다. 화해와 생
명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적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의 다섯 가지 기초적 영역
인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를 화해와 생명 지
향적이 되게 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대
리자로서 화해의 사명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화해의 직분자로 파
송하는 데 더 큰 강조점을 가지도록 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J. 보쉬(David J. Bosch)는 그의 책 「변화하고 있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시대적-사회적 위기 속에 스스로의 체
질을 바꾸면서(Transformation)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성장해 왔다고 이야
기한다. 만약 교회가 화해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실천하며 교회공동체의 체질
을 화해의 체질로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삶과 뼈를 깎는 고통이겠지만
갈등과 반목의 위기 시대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5장

화해의 조직신학적 이해

| 김승학 목사 |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총회 재판국에서 다루어야 할 분쟁 건수가 확연히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총회 임원회에 현의되는 대부분의 안건 또한 교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불신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교회 악습 중의 하나가 ‘분쟁’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교회 내부 분쟁이 표출되고 두 집단, 혹은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상호 간 폭행과 폭언이 오가며 고소·고발로 비화되기도 하며 심지어 용역을 동원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독교공보」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교계가 버려야 할 몇 가지 악습 중 하나에 교회 분쟁을 포함시켰을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의 분쟁뿐 아니라 다양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남북 간, 지역 간, 빈부 간, 남녀 갈등, 세대 간, 지역 간, 보수와 진보 사이, 종교 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연령, 지역, 계층, 피부색, 성(性)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갈등의 상처가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분쟁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제(諸) 분야에서의 화해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복 70주년과 동시에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화해

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원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남북 화해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일반적으로 화해는 가해자의 사과가 전제된 피해자의 용서로 이루어진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 기존의 화해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현실 안에서 그런 식으로 화해를 성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의 지혜요, 이 땅의 지혜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화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1. 화해의 삼위일체 하나님

화해는 하나님의 중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무엘 하인즈(Samuel Hines)도 “하나님은 화해라는 단 한 가지 의제를 갖고 계신다. 이것은 의미심장하여 많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후 5 : 18 - 19)

그렇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그 결과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成肉身)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해졌다. 즉, 화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했으며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화해의 사역의 시작인 동시에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화해사역은 하나님에

의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화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 화해에 관한 제(諸) 이해

1) 신약성서의 화해 이해

신약성서에서는 화해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적대와 소원으로부터의 회복으로 이해한다. 신약성경의 화해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 피조물이 더불어 평화 속에서 사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화해는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희생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해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표출한 거룩한 방식이다. 십자가를 통한 화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오지만 수평적으로는 인간 간의 화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화해는 원수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대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에 둘러싸여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의미한다.

바울은 화해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두고 있으며,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로버트 슈라이어(Robert J. Schreiter)는 바울이 화해를 세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 단계는 모든 화해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슈라이어는 이것을 ‘수직적 화해’로 설명한다. 로마서 5:1-11을 기초로 한 ‘수직적 화해’는 하나님께서 옛 아담인 인류를 새 아담인 그 자신과 화해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공동체라고 본다. 두 번째 단계는 ‘수평적 화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즉 사회 안에서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해를 말하며, 에베소서 2:12-20에 근거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에베소서 1:10과 골로새서 1:20에 근거하는데, 이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걸친 우주적인 화해를 말한다. 그리고 슈라이어

는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한 화해사역에 모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한다.

2) 칼빈의 화해 이해

칼빈은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고 하면서 인간을 죄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은 마음도, 눈도 어두워져서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었다. 인간이 반역한 후,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뿐이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저주를 받아 진노의 자식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와 구원과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화해자라 정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없이는 인류와 화해할 수 없으므로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했다.

더욱이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화해를 중재할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칼빈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구속자의 필수적인 임무가 죽음과 죄를 정복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필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가 가능하다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왜곡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한다며 하나님과 이웃 양 축의 화해 모습을 제시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직책으로 예언자적 직책, 왕으로서의 직책,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책 등 세 가지를 열거한다. 그런데 이 3중직 중에서 화해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사역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에 의해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를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시요, 동시에 화목제물이시다.

3) 칼 바르트의 화해 이해

전통적 화해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화해론을 주관적 화해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바르트는 객관적 화해론을 전개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때는 예수님이 만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2천 년 전 그때, 이미 우리의 죄가 청산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때 만민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결단에 관계없이 만인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바르트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바르트는 “자신은 만인 화해론을 말하는 것이지만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만인 구원론에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

바르트가 제시한 화해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어 화해하는 하나님이다. 둘째, 참 인간은 하나님께서 높이고 화해시킨 인간이다. 셋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통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약의 성취자로서의 화해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중보자다.

다시 말해 바르트의 화해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화해하셨으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약의 성취자로서의 화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중보자인 동시에 객관적인 화해의 실체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속 사역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성취했다는 것이다. 바르트의 화해론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으로,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화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협력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해는 바로 하나님의 전 존재요, 그분의 전 삶이다. 화해는 하나님의 행위의 목표요, 하나님의 근본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의 보증이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해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성령은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

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

3. 교회의 화해사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했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속과 화해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지만 구속은 특별히 화해의 삶을 요구한다. 화해는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삶이다. 따라서 화해는 윤리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과 화해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와 규율에 대한 화해’라고 이야기한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에 동참하게 하며, 하나님은 교회가 이 화해사역을 성령 안에서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참여적 실천(praxis)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화해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바르트는 교회를 화해의 수직운동과 수평운동의 종단점으로 규정한다. 수직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화해적 행위를 나타내고, 수평운동은 인간들과 인류를 향한 화해의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직운동은 화해의 객관적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이고, 수평운동은 화해의 주관적인 측면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화해로의 능동적 참여를 이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수평운동과 수직운동, 즉 두 운동의 만남을 통해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객관적 화해가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로버트 슈라이어는 교회가 행해야 할 두 가지 화해사역으로 ‘과정으로서의 화해사역’과 ‘목표로서의 화해’를 제시한다. 특히 ‘과정으로서의 화해사역’은 주로 수평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화해를 의미한다. 이것은 억압, 부정, 차별, 전쟁과 무모한 파괴 등에 의하여 심오하게 상처를 받아 깨져 버린 사회를 치유하기

는 하나님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화해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의 동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실현한 것으로, 죄로 인하여 파괴된 우주의 질서와 일치를 회복하는 매개체가 된다. 화해의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충만하고 자유로운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이다. 화해는 하나님과 이웃과 온 피조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사건이다. 이 화해는 창조세계에 대한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은 보편적이며(엡 2 : 14-18), 우주적이라고(골 1 : 15-20)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화해사역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조물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4. 결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다. 화해는 죄로 인해 분리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화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호의로 변해서 적의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화해는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화해의 초점은 다툼이나 불화 등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사랑의 관계 회복에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화해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며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유일한 도구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관계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화해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를 넘어 이웃을 향한 수평적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심장을 갖고 계신다. 사랑의 심장은 화해로 이끈다. 예수님도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역시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화해의 제물로 나아가야 하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화해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장

화해의 교회사적 이해

| 임희국 목사 |

1. 내한 선교사들의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실천된 한국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는 연합과 일치의 정신(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출발했다. 19세기 후반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장로교회 교단들이 각각 한국으로 파송한 내한 선교회들이 연합하여 공의회(Council)를 조직하여 출범했던 것이다(1893년). 이 공의회가 발전하여서 ‘하나’의 한국 장로교 교단으로 성립되었다. 교단설립의 정신, 곧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년 9월 17일, 제1회)”의 서문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인민을 도라보샤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렐냐) 장로교회와 (가나나) 장로교회의 주를 밋는 모든 형제궤매들의 마음을 감동식혀 이 네곳교회 총회로 선교사를 택명하야 이곳에 보내시매…… 이 네곳총회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장로회 로회를 세우기로 허락는고로 장로회 회장 마포삼열 목사께서 네곳 총회의 권을 얻어 한국교회에 로회되는 취지를 설명하시되…… 주 강생 일천구백칠년 구월 십칠일 오정에 한국로회를 설립후후 대한에 신학교 졸업학식 날곱사름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민국 예수교장로회 로회라 하섯스니 이는 실노 대한민국 독립로회로다.

이 연합과 일치의 정신(에큐메니칼 정신)이 그 이후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2. 1950년대 세 차례 분열된 장로교회

1950년대의 한국 장로교회는 연합과 일치의 전통에 반(反)하여, 3차례 분열되었다. 그 결과, 하나의 장로교회가 네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1952년 제1차 교단 분열에서 “고신”교단이, 1953년 제2차 교단 분열에서 “기장(기독교장로회)”교단이, 1959년 제3차 교단 분열에서 “예장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과 “예장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이 각각 생성되었다. 제1차 분열(1952)은 일제 식민지배시대의 신사참배와 과오를 청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제2차 분열(1953)에서는 1930년대의 성경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제3차 교단 분열(1959)은 일제 강점기에 단절된 세계교회와의 국제교류를 회복하는 상황에서, 소위 ‘삼천만환 사기사건’이 교계분란을 일으켰고 그 분란의 결과가 교단 분열의 제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3. 총회의 ‘비상조치법’(1952)

장로교회의 제1차 교단 분열로 말미암아 어수선한 상황에서, 1952년 4월 장로교회 총회(제37회)는 이북노회의 총대를 초청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비상조치법”을 선언하였다. 노회란 본디 행정지역을 가져야 하지만 국토분단과 6·25 전쟁(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역을 잃어버린 이북 노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총회는 행정지역을 상실한 이북 노회의 총대를 받아들이고자 비상조치법을 선택했다. 장로교회 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행정지역이 없는 노회는 총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부터 지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잃어버린 노회가 총회에 총대를 파송해야 하는 상황을 총회가 헤아려서 비상조치법을 선포했다. 총회는 이북 노회의 총대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정치적으로 “남북(한)통일총회”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다.

총회의 비상조치법 선포는—이북 노회의 요청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남한 노회들의 총의에 따라 결의된 것이었다. 그 결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북(38선 이북) 노회가 월남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노회는 1950년 9월 28일 이

후에 월남했어야 하며, 월남 노회의 총대 수는 장로교회 제31회 총회(1942년) 총대 수에 준하여 받기로 했다.” 이 시점에 따른 이북 노회의 수는 모두 13개였다. 장로교회 총회는 13개 노회 가운데서 10개 노회를 월남노회로 인정했다. 10개 노회는 평양, 평북, 안주, 평동, 용천, 황해, 황동, 평서, 함남, 함북노회였다. 그 당시에 총회산하 전국의 노회 수가 25개였는데, 이 가운데서 이북 노회는 10개였다. 이와 관련하여, 월남 피난민 교회의 교세가 장로교회 총회에서 약 40%를 차지했다.

4. 분열된 교단의 화해를 위한 ‘신사참배취소성명’(1954)

그렇지만, 장로교회의 교단 분열은 계속해서 노회 분규와 개 교회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1954년에는 장로교회가 현재 고려신학교파, 재건파, 복구파, 자유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총회의 지도자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자 교계(敎界)의 관심이 이원영(李源永, 1886-1958) 목사에게 쏠렸다. 그는 신사참배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던 출옥성도였고 또 ‘경남노회육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고려신학교 측이 총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교단지도자들이 주목했다. 그는 신실한 목회자로 교계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총회장이 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여론도 돌았다. 장로교 제39회 총회(1954)는 이원영을 총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출했다.

이번 총회의 총대 대다수는 장로교의 교단 분열이 신사참배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 죄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고려신학교 측 교회를 총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사참배 죄를 통회하며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교회의 신앙양심을 바르게 세우고 교단의 재결합을 위한 총회의 죄책 고백이 긴급하게 요청되었다. 총회는 1938년(제27회)에 결의한 신사참배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위원회(이원영, 명신흥, 권연호)를 선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참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게 했다. 위원회는 다섯 개의 항목을 만들어서 총회에 제출했다. 1)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문서로 작성해서 전국교회에 공포하고, 2) 총회 기간에(총대 전원<全員>)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3) 위원 5인을 선택해 신사참배 주동자들을 심사한 후, 해당 노회에 통지해 처벌하도

록 할 것, 4) 신사참배로 순교한 성도의 유가족을 위해 총회 기간 중에 한 차례 연보하고 6월 첫 주일에 전국 각 교회가 연보해 유족에게 위문금을 드릴 것, 5) 6월 첫 주일을 통회주일로 정하고 각 노회를 통해 전국교회가 하루 금식통회 하며 속죄를 위해 기도할 것 등이었다. 총회는 이 가운데서 4개 항목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기로 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신사참배취소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외교회에서 회집한 제27회 총회결의인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출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충후 황국신민으로써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의 성명에 대해 그 결의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결의 실행했으되 남북통일 총회가 아니었던 고로 금번 남북이 통일된 본 총회는 이를 취소하고 전국교회 앞에 성명함
(1954년 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원영)

총회는 이 성명서와 함께 분열된 총회가 화해하여 화합되기를 기원했다.

5. 장로교회 제3차 교단 분열과 ‘통합촉진위원회’(1959)의 화해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9년에 장로교회의 교단이 세 번째 분열되었다. 그 직후에, 분열된 교단의 재결합을 위해 ‘통합촉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통합방안”을 마련한 촉진위원회는 분열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75년간의 신앙전통을 지킨다. 2) 총회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와 ICCCN(AE)를 탈퇴한다(참고 : 여기에 대하여 선교사 마삼락(Samuel H. Moffet)이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그는 ICCCN과 AAE를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AAE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기독교인들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친교로 친밀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모든 교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케 하며 연합시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 두 기관이 사이 좋게 지낸다. 그러나

IC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는 NAE와 전혀 다른 기관이다. ICCC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에게 증오심을 심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ICCC의 대표인 매킨타이어(Carl McIntyre)는 처음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정통장로교회”를 갈라 나갔고, 그 다음은 정통장로교회에서 “성경장로교회”를 갈라 나갔고, 또 그 다음엔 성경장로교회를 분열시켰다. 이처럼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서 정통을 표방하면서도 교회를 분열시킴으로써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들은 실제 자유주의 경향으로 기울어진 교회에는 아무런 역할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킨타이어는 “일찍이 브라질에서도 한국과 같은 분열을 조장한 사람이다.” 마삼락, “현대 기독교의 난관과 기회,” 朴昌睦, 「世界教會運動小考」(聖學社, 1957), pp. 4, 14-15. ICCC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되었다. 주관자는 매킨타이어였다. 그는 오랫동안 회장직을 독점하여 이 단체를 사유화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교회가 이 단체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1950년 당시 고신 측의 한상동, 박윤선 등이 매킨타이어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그가 만든 Faith 신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때부터라고 한다. 3) 선교정책을 양측이 협의하여 재추진한다.”

장로교 교단의 제3차 분열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회에게도 충격적이었다. 이에 미국 장로교의 임원단이 11월 9일 내한하여 먼저 ‘통합촉진위원회’와 회합하고, 그 다음 ‘승동 측(합동)’과 회합했고(11월 16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동 측(통합)’과 회합했다(11월 17일). 연이어서(11월 18일) 일행은 양측을 함께 초청하여 연석회의를 가졌다(참고: 연동 측은 전필순, 한경직, 김석찬, 유호준, 이창규, 김광현, 안광국, 김봉준, 최중해, 김형남 등이었다. 승동 측은 이인식, 최재하, 이승길, 고성모, 나덕환, 권연호, 박병훈, 명신홍 등이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도 11월 16일 날짜의 편지로 “세계교회가 분열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만은 분열되어서는 아니되오니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 회의를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회(참고: 미국의 장로교회는 19세기 미국의 내전<남북전쟁>으로 인하여 두 개의 장로교회<북/남>로 분열되었다. 이 무렵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새로 이민 온 장로교회 교인들도 연합장로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이후로 미국의 장로교회는 북 장로회, 남 장로회, 연합장로회로 갈라져 있었으되 모두 다 스코틀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세 개의 가지였으므로, 세 개 장로교회 교단들이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

익어 갔다. 교단 교류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다가, 1958년에 북 장로회와 연합장로회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했다. 흥미로운 점은 북 장로회가 자신의 교단 이름을 포기하고 연합장로교회로 개칭하였다. 북 장로회의 교단 규모가 훨씬 크고 방대했는데도 자기의 이름을 포기했다. 미국 북 장로교회가 “연합장로교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1958년), 이에 한국에 파송된 그 교단의 선교부를 “에큐메니칼 선교부”로 개칭하였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함께 주관했다. 연동·승동 양측 위원과 세 선교회 대표가 이듬해(1960년) 1월 중순까지 열린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을 모색했다. 그러나 1월 15일에 양측의 노력이 완전히 결렬되었다.

2월 17일, 연동 측, 승동 측, 중립 측(총회 화평통합촉진위원회)에서 통합을 원하는 총대들과 세 선교회(미국 남·북, 그리고 호주 장로회)가 새문안교회에서 모였고,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통합 측)가 개최되었다. 통합총회는 대전 중앙교회와 서울 연동교회에서 모인 제44회 총회(1959년)를 확인하고 그 모든 결의를 인수하였다. 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용공도 아니고, 신신헌도 아니며, 더욱이 단일 교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이 단체에서 탈퇴하기로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 결의대로 통합 측은 합동 측과의 관계 복원을 위하여 곧바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탈퇴했고, 1969년에 다시 가입하였다.

6. 교단 분열의 여파로 그 고통을 떠안은 교인들, 이들의 화해와 화합

장로교회가 1959년 합동과 통합으로 세 번째 분열되자, 경상북도 청도의 칩첩 산골에 있는 박곡교회가 교단 싸움에 휘말려 둘로 나뉘었다. 주후 1906년에 설립된 박곡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잘 견디고 6·25 전쟁도 잘 이겨 내어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데 그렇게 탄탄하던 교회가 1950년대 말에 양편으로 갈라져서 내분이 일어났다. 총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져 싸웠던 탓에, 박곡교회도 그 싸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외국어인 에큐메니즘(ecumenism)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인들은 들은 얘기로만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서로 대립하였다. 1962년에 교인들의 한 편은 ‘합동 측’으로 또 다른 한 편은 ‘통합 측’으로 갈라섰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교회 분열은 또다시 교회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합동 측은 교

회건물을 차지하고 통합 측은 사택과 토지(논밭)를 차지하는 것으로 싸움이 일 단락되었다.

분열되어 둘로 쪼개어진 교회는 서로 떨어져서 각각 자리를 잡았다. 통합 측 교회가 새로 건축되었다. 그러나 분열된 교인들은 여전히 한 동네에 살았다. 조 상 대대로 같은 마을에서 서로 의지하며 몸을 비비고 살아오던 이웃들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교회 때문에 서로가 등을 돌리는 남남이 되었다. 길에서 마주 치면 서로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고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 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무거워졌다. 예전 대, 어떤 장로의 가족은 여러 친척들이 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고 모두 다 교 인이었다. 이 집안 역시 교회의 분열로 인해 양편으로 나뉘었다. 친척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만날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명절(설날, 추석)이 오면 친척끼리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 명절이 되면 온 일가친척이 큰댁(교회 장로의 집)으로 모였는데, 서로서로 어색한 자세로 멀뚱멀뚱 서먹하 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각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명절이 이제는 재미없고 모이기 싫은 날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 기막힌 사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마음고생이 깊어 갔다.

이 상황에서 집안어른이자 양쪽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도 저히 안되겠다.”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동네에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싸우고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양쪽 교회의 장로들이 조 심스럽게 만났다. 혹시 남의 눈에 필까 봐 한밤중에 만났다. 만난다는 사실 자체 가 조심스러웠고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의 문이 열렸 다. 그렇게 진전된 대화는 두 교회를 다시 하나로 합치자는 합의로 발전하였다.

드디어, 두 교회가 갈라선 지 약 3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1990년대 에 이르러 박곡교회는 이제 교회분열의 명예를 스스로 벗어버렸고 그 아픈 상처 도 말끔히 치유되었다.

※ 이 글은 글쓴이의 출처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임희국, 「한국 장로 교회 130년. 서두름과 기다림의 역사」〈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제7장

가정공동체와 화해 :

목회상담적 접근

| 김예식 목사 |

1. 사례 제시

오래전 필자가 미국에서 임상목회상담교육(CPE)을 받고 있을 때 한 일본 여성과 1년간 같은 팀원으로 지낸 적이 있었다. 우리 팀원은 모두 아홉 명이었고 미국, 캐나다, 독일,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국적(多國籍), 다문화(多文化), 다인종(多人種) 간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의 내면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상담적 이해를 넓혀 주는 기회를 서로에게 안겨 주었다. 호놀룰루 북부에 있는 캠프 모쿨레이아(Camp Mokuleia)에서 만나 룸메이트가 된 미찌꼬(가명)는 성공회 여자신부 후보생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황혼이 붉게 물든 저녁, 하와이의 따뜻한 바닷가 방파제 위에 나란히 앉아서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팀원 중에서 유독 말없이 조용하던 미찌꼬의 입을 통해 나는 그녀의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었다.

미찌꼬는 어릴 때 아픈 엄마 밑에서 자랐다. 그녀의 엄마는 폐병으로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살림을 할 수 없을 만큼 병약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외가 집에서 보내야만 했는데 중학교 시절의 어

느 날, 외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일은 그녀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되었다. 그 후 외할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던 어린 시절, 엄마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전혀 도움이나 방패막이가 되어 주지 못하고 어린 딸의 끊임없는 뒷바라지만 받은 채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자신을 혼자 버려둔 채 떠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버림받은 감정과 증오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넘나들며 괴로운 상처로 남아 그녀는 그 아픈 기억을 잠시 전의 일처럼 회상하며 처음 만난 한 외국인 여성에게 쏟아 내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들은 다양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 수없이 깨어지고, 상처받으며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2. 화해가 필요한 이유

데이빗 A. 씨맨즈(David A. Seamands)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이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서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콰이어(미국 캘리포니아산 거목)라는 나무를 잘라 보면 놀랄 만큼 수많은 나이테들이 있는데 이 나이테들은 그들이 거쳐 간 역사와 세월들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나이테마다 그 당시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이나 벼락을 맞았던 기억을 담고 있고, 온 수목이 다 타서 없어질 만큼의 엄청난 산불의 흔적을 담고 있기도 하며 때로는 견디기 힘든 병해로 얼룩진 상처를 담고 있기도 하다. 나이테는 한 나무의 성장에 관한 정직한 자서전(自敘傳)이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나이테가 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은밀히 감춰진 인생의 나이테의 기억에는 아주 오래된 아팠던 흉터들이 세월의 깊이만큼 촘촘히 새겨져 있다. 목회상담학자인 찰스 거킨(Charles V. Gerkin)은 모든 인간은 다 각자의 역사를 가지며, 그 자신이 하나의 “살아 있는 인간 문서(The Living Human Document)”라고 말했다.

미찌꼬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녀의 나이테 속에 미해결 과제(unfinished business)로 남아, 여전히 상대와는 물론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해의 사전적 의미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

을 풀어 없앤다는 의미가 있고, 또 소송이나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상호 간의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화해의 주체는 양쪽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해는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양쪽의 중간지점에서 멈추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는 아니다.

그에 비해 성서에서 말하는 화해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 상호 간에 또는 집단 간에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헐리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일방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구조, 또는 개인을 통하여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 때때로 잘못된 의도가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경우, 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에서조차도 그 선한 의도와 관심을 왜곡시켜 해석하고 이용하여 무참하게 짓밟아 적대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을 대면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성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용어가 있다. 바로 ‘화해’와 ‘평화’이다.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을 의미한다. 대립, 분열, 반목, 질시, 다툼, 적대감, 박해, 비난, 전쟁 등이 없이 잘 살아가는 상태가 ‘평화’다. 한글 신약성경에는 평온, 평안, 평강, 화평 등 다양한 번역어가 채택되었지만, 헬라어 신약성경에는 한 단어 ‘에이레네’가 사용되었다.

‘평화’가 상황을 지시하는 데 비해, ‘화해’는 그 평화로운 상황에 도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이다. 화해에는 불화, 다툼, 대립, 박해, 전쟁 등 부정적인 관계가 앞서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화해이다. 따라서 화해나 평화는 신약성경에서 우리말과는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 교리적 색채를 내포하고 있다. 즉, 화해와 평화는 신약성경에서 윤리적인 용어(화해)나 삶의 상황에 대한 묘사(평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화해)과 그 결과(평화)를 지시하는 용어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화해’와 그 결과인 ‘평화’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신적 평화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해, 신적 평화는 사람들 사이, 가족공동체 속에서, 종족과 민족들 사이에서 화해와 평화의 기초가 된다.

신약성경의 화해와 평화는 한편으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구성하는 용어

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용어이다. 이 특수한 기독교적 의미들은 화해, 평화가 가진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가되어 나타난다. 치유를 경험해야 상처가 다시 회복되듯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깊은 상처 또한 치유의 과정을 겪은 후에야 건강을 경험할 수 있다.

3. ‘요셉의 가정’을 통한 치유와 화해

1) 요셉의 환경

요셉은 17세까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훌륭한 성품을 소유한 자는 아니었다. 그는 형제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미성숙한 성향을 보여 주었고,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격적인 삶을 보여 주었으며, 네 명의 여자와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열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로 인해 가정불화, 갈등, 질투, 미움, 복수, 근친상간, 시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대량 학살까지 일어났던 문제의 가정 속에서 성장하였다.

2) 가족에게 버림받은 요셉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방해가 따라오기도 한다. 때로는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며,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그 사랑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꿈 꾸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경향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고, 기회가 왔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요셉이 울며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잔인하게 거절할 만큼 요셉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이후 요셉이 애굽에서 그토록 충성했던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 넣었던 원흉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는 요셉의 가슴에 쓴 뿌리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채 지내는 동안 그의 가슴에는 인간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버림받았다는 고통

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3) 상처의 걸림돌, 그 절망을 수용한 요셉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디발에게,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버림받았다.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지나간 과거의 원한을 갚는 일에 전념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상한 감정과 그의 내면에 남아 있는 분노와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보게 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시며 돌보심으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받아 온 상처들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치유받은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과 비관의 눈물을 그치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뛰어난 적응 능력을 보였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내는 실력을 길렀고,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실력을 인정받아 그의 가정 총무가 되었으며, 주인은 식료 외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임하였다. 이는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어,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제 그가 치유되는 과정,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자.

(1) 자기 인식(self awareness)을 통한 치유와 화해

자기와의 화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기를 통찰해야 한다.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다스려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격은 이러한 자기 이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한다.

요셉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인식을 통해 자기 내면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쓴 뿌리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2) 사랑의 직면(confrontation)을 통한 치유와 화해

20여 년 만에 요셉은 형들과 해후하게 되었고 그때 요셉은 두 가지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 하나는 수용적인 태도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직면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는 먼저 사랑으로 신뢰를 쌓은 후에 직면으로 그들의 성숙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직면한 후에 사랑과 수용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며 마음속으로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이 숨겨져 있음을 본 것이다. 비록 동생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동생을 죽이려 했고 상인들에게 팔아 버린 그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죄를 징벌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악함에서 벗어나 회개할 수 있도록 강한 개입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거칠게 다루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서로 진실한 만남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떨쳐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형들에게 죄와 악을 보게 하여 가슴 깊이 스며들어 있는 무서운 죄의식과 죄책감을 노출시켜서 직면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나가도록 도왔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간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창 42 : 21 - 23)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잘못과 악에 대한 직면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화해에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악을 직면하는 계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일 때 치료적 효과가 있다.

(3) 용서를 통한 치유와 화해

불신은 모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그것은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의심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깊은 불신 속에 빠지게 되며 결국은 파괴되고 남는 것이 없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을 의심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형제들의 마음에 일어났고 그들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창 50 : 17).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형들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불신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로 저들을 위로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창 50 : 19-20)

요셉은 형들 때문에 먼 이국땅에서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그 상황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그의 용서의 근원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에 있다. 죄인 된 자신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 비전, 불드심, 함께하심, 능력 주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경험이 원수 와도 같은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자식까지도 기르겠다고 선언하게 한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 것이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성공, 물질, 그리고 권력이 파괴하는 폭발물과 같다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형통, 번영, 그리고 권세는 섬김의 도구가 된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을 모두 해묵은 족쇄로부터 풀어 준다. 그리하여 인간을 화해로 전진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과 갈등의 상황들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다. 화해도 마찬가지이다. 화해를 시작하고, 화해를 주도적으로 이루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과 조

건에 상관없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약하고 모자란 요셉을 선택해, 완약하고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형제들을 용서와 화해로 이끌어 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요셉은 강제로 팔려 왔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은 팔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의 가족을 위해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다. 그는 꿈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악 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의 선을 창조해 나가심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상처를 치유 받은 요셉은 또 다른 형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가 되어 해묵은 갈등의 매듭을 풀어내는 가족 내의 화해자로 세움 받았다.

제8장

교회공동체와 화해

| 한재엽 목사 |

한국교회의 침체는 교회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계는 이러한 교회의 침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원인을 찾고 있는 바, 이미 드러나고 잘 알려진 이유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자체 분쟁이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하나 되어 외부의 끊임없는 공격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갈가리 찢겨지고 분열되어 내홍을 겪는 까닭에 세상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자생력을 잃고 붕괴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왜 분쟁하는가? 그 분쟁의 도는 왜 점점 더 높아만 가는가?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이어 주어야 할 교회가 왜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며 한 번 충돌하면 왜 다시 화해하지 못하는가?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켜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화해공동체였던 처음 교회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처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의 임재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 처음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 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건이 방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행 2:4) 놀랍게도 그들은 각기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같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으로(행 2:11) 서로 다른 지방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둘째, 예수의 부활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 처음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 모든 선포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회가 강력한 힘으로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며 각계각층을 진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선포되는 메시지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기독교를 향한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핍박이나 조롱, 천대를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갈등과 반목, 분열과 전쟁을 덮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었다.

셋째, 구원의 역사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 처음 교회는 한눈팔지 않고 한 가지 사역에 집중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듣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전력투구하였다. 공동체의 모든 역량과 기능은 오직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집결되었고 교회는 오직 이 사역을 위해 폭발적으로 나아감으로 단기간에 세상 권세가 좌우지 할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거기에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처럼 처음 교회의 강력한 영적인 힘은 교회가 모든 화해의 핵심인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인간의 구원)를 이루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처음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의 분열을 멈추고 하나가 되며 더 나아가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2. 처음 교회와 현대 교회의 분열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강력한 일치를 보이던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보인 첫 번째 원인은 재물 때문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의 공동소유 운동에 역행해 자신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자 교회는 강력한 치리로 그 불순한 그림자를 차단한다(행 5:1-11). 하지만 오래지 않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됨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으로 분쟁의 싹이 자라나게 된다(행 6:1). 현대 교회의 분열의 첫 번째 이유가 재물과 연관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회공동체의 모델인 제자공동체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서 비롯된 제자들 간의 자리다툼(마 20:20-24)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 분쟁의 주원인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안팎의 자리와 권력을 소유하고자 비성경적인 다툼과 정쟁을 일삼고 있는가? 이처럼 현대 교회의 분쟁의 싹이 처음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교회 분열은 누가 일으키는가?

이런 교회 분열은 누가 일으키는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과 조직, 그리고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는다. 즉, 믿는 이들의 성숙하지 않은 인격과 지칠 줄 모르는 욕심, 미비한 조직과 불합리한 법 제도가 원인이라 여기지만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찾고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분열의 주범은 사탄이다.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가장 질시하는 자는 사탄이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는’ 결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윗에게 하나님보다 백성의 수를 믿으려는 생각을 넣은 자(대상 21:1),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자(요 13:2; 27)는 다름 아닌 사탄이다. 사탄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교회를 분열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 거짓을 진실인양 전파하게 하고 선동하며 암암리에 교회를 거짓 정보로 물들게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사탄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종 분야에 이런 악한 영향력을 심어 성도 개인이나 한 교회 혹은 교단이라도 대처하기 어렵게 다방면으로 침투하고 역사한다. 작금의 교회 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현상들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교회의 분열이 교회 구성원의 분열을 넘어 교단, 교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언론계를 포함한 대중매체 및 인터넷 영역과 심지어 일반 사회 법정에까지 두루 갈등 구조를 확산 및 고착화하고 비기독교권에까지 교회의 속살을 드러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뿌리째 흔들고 갈기갈기 찢개어 회생이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발표한 ‘2014년 상담 통계 및 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회 분쟁의 톱 3는 당회나 당회장의 재정 전횡,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교회 세습 순이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지난해의 상담 주제 순위가 근 10년에 걸쳐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평신도 상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며, 셋째는 교회 내의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상담 주제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교회 분열의 원인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그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요컨대, 사탄은 처음 교회나 현대 교회를 불문하고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을 두드려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조정하여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를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역사로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일치와 화해를 이루지 않고서는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밖에 없는 희망인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화해는 요원하다.

4. 어떻게 분쟁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화해는 제도나 시스템, 인사이동, 법률 강화, 도덕성 고취 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빈틈없이 채우고 단단하게 세워도, 사람을 아무리 교체해도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당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선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다 (갈 5 : 16 - 21).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 사람이나 조직만의 힘으로는 화해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성령님만이 욕심으로 도배된 인간과 교회의 회개를 불러올 수 있고 그 회개 위에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 : 7)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피할 것이요, 마귀가 떠난 교회공동체 속에서만 갈등 구조의 당사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처음 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조직도, 건물도, 사람도, 재정도 있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또한 강단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어야 한다. 인간의 말, 흥미 있는 세상의 논리, 호기심을 채워 주는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증언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강단이 세상의 말로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의 갈등은 사실 강단이 본질에서 멀어진 인간의 말로 채워지기 시작한 후부터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선포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한다. 선포되는 메시지의 초점이 예수의 다시 사심에 맞춰진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화해시키며 일치되게 할 것이다. 메시지의 진지한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일치하는 대신 분열하고 다시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교회가 해야 할 일 대신에 세상 일, 사탄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유언하시며 교회에 명하신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이 아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구원선이길 포기하고 유람선 내지는 친목 모임, 사회 압력 단체, 교인들만을 위한 리그가 되어 버렸다. 그때부터 교회는 일치를 상실하고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어떤 이념이나 운동도 본질을 벗어나면 아류가 생기고, 그 아류들은 곧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일치와 화해를 기대하는 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원 역사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는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화해는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예산, 시스템과 동력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합리적이고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분열되었던 교회가 화해로 나아가며 처음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로 일치되어 선교의 큰 흐름을 이루어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것이다.

5. 맺는 말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의 종교 실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의 비율이 21%로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비록 종교 호감도에서 불교, 천주교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 - 한 주간 출석 횟수(불교 6%, 개신교 80%), 헌금 - 십일조(천주교 36%, 개신교 68%)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월등한 열심이 있다는 점은 아직은 한국 개신교가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양면을 보여 주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사회 속에서의 호감도인데, 이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진리의 절대성, 비교적 민주화되어 있는 의사 결정 및 표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다만 그동안 교회가 사회에 보여 준, 결코 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분열된 모습들을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치유로 극복하여 새롭게 빛과 소금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 아직도 개신교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앙의 열정을 어떻게 규합하고 바람직하게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위기의 개신교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출발의 첫 단추가 분열된 교회의 화해와 일치라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회의 화해와 일치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세상과 특별히 이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악한 영에 물든 개신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이나 사람의 어떤 힘도 교회의 분열을 화해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개입만이 한국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 허황된 다른 방법을 찾지 말자.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다만 통렬히 회개할 때 반드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분,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처음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하신 분, 바로 그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자. 성령의 화해의 역사가 유일한 답이다.

제9장 사회공동체와 화해

| 조재호 목사 |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 갈등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종교적 갈등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목표 추구나 가치관의 인식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수도 있다. 이해관계나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갈등은 누구나, 어느 사회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선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고, 공적 목표나 상호 간의 이익 추구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근대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한말, 사색당파의 치열한 대립으로 사회는 나아갈 방향을 잃었고, 나라의 살림은 피폐해졌으며 백성의 삶은 팍팍해졌다. 그 공백의 골짜기를 따라 서구 열강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왔다. 서구 문물의 유입은 나라의 기반이었던 유교적 가치관과의 괴리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를 앞세운 일제 36년의 침략과 압제는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안겼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공생해 왔다. 일찍이 일본의 왜구들이 우리 땅에 난입하여 약탈했고, 이와 관련된 큰 전쟁이 바로 세종 1년에 있었던 쓰시마정벌이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과 같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 속에서 공존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를 백지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통해 또 다른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과거사 수정 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 국무부 또한 자국 역사학자들의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은 언제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얹힌 주변국과의 갈등은 해방을 거치면서,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북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한 사상적·정치적 갈등은 점차 가속화되어 6·25 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 주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만나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관계적으로, 내·외부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갈등의 시대에 화해의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1. 우리 사회의 갈등은 단일 초점이 아니라 다 초점이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갈등이 없었던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문화가 다른 사회마다 갈등의 양상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지만 유독 갈등이 심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터키는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터키의 주된 갈등 요인은 종교적인 것이다. 폴란드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상존해 있으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국가 재정 위기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들을 보면 비교적 단일 요인에 의한 갈등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회의 갈등은 보다 다양하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근대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이념적인 문제였다.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갈등 속에서 엄청난 생명과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사회 전반에 편만했던 이념적 갈등은 정치구도 속에서 지역 갈등을 지나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나아가 최근에는 이른바 갑질로 표현되는 갑과 을 간의 갈등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즘은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세대 간의 일자리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피부로 겪고 있는 일자리 갈등의 주된 내용은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무조건 등의 차별로 야기되는 갈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 복지 정책에서의 세금과 수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노년세대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가 고민이 되었다. 이는 연금과 복지가 결부된 새로운 갈등 사회로의 모습을 예견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갈등의 양상과 원인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2.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형태가 다양각색이고, 그 요인 또한 다양할 뿐 아니라 국민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 갈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회적 지표 가운데 자살률과 범죄율, 그리고 이혼율 등이 있다. 이 지표들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요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갈등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핼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있다. 님비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쓰레기 처리장이나 화장장,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처럼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현상이다.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는 지역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 모두가 원하는 좋은 시설만 불러들이려는 과도한 유치 현상인 핼피 역시 집단 이기주의의 갈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된다.

이로 인한 지역 집단 이기주의는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집단적인 대립으로 비화된다. 이는 결국 과도한 재정 낭비와 지나친 감정 소모전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해결되고 치유되기보다는 깊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자폐증연구센터 소장인 사이몬 배런 코헨(Simon Baron Cohen) 박사에 의하면 사람은 눈과 행동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는 이것을 ‘마음 읽기’라고 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경인지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마음 읽기 체계는 성장 과정에서 발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읽을 수 있으며 공감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생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마음맹(mindblindness)이 된다. 이런 마음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격장애자로 나타나며, 발전되고 심각해지면 자기를 특정 공간과 환경에 가두는 자폐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맹은 그가 속한 사회공동체의 경직을 불러오고, 결국 불통 사회를 초래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해결되고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의 사회적 총량은 불통 속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곧 갈등이 화해되고 치유되는 속도보다 깊어지고 새롭게 발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의 갈등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으며, 향후의 갈등은 지금의 갈등보다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34개의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사회 갈등이 많고 복잡한 나라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아 왔다.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다름의 가치와 이를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나아가 해방 이후, 이념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 선진화되지 못한 정치 구조와 미숙한 정치 행위가 지금까지 사회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 구조로 말미암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심화되고 갈등 전선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화된 압축 성장과 함께 개인과 집단의 욕구가 급속도로 표출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가치와 이견이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공공 시스템이나 승승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설득 조정 기능이 취약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OECD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와 정부 효과 지수는 아주 낮은 편이다. 또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불 비용이 한 해 246조로 추산될 정도로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

4. 교회의 고민 : 갈등의 중심에 있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사회적 환란과 신앙적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회의 어두움을 극복해 내는 실존적 희망을 보여 주었다. 혼란스러웠던 사회에 공의롭고 희망적인 방향을 과감하게 보여 준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성령의 역동적 힘을 잃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 온 사회적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문제는 안에서 시작되었다. 맘몬주의, 금권주의, 맹목적 성장주의, 교권주의 등은 교회 안에 영적 경직을 불러왔고, 결국 사회성과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받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오늘의 교회는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송사와 재판이 급속히 번져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회 내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실되고 있으며, 사회를 선도하고 치유하는 그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식물인간 같은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단의 예만 봐도 그렇다. 개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 관련 송사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총회의 법리 판단에 불복하며 일반 사회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교회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앙 안에 있는 영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힘은 자정력과 복원력

으로 이어진다. 우선 한국교회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시대적 책임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먼저 교회 신뢰프로세스를 만들고 교회다움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 갈등은 죄로 한계 지어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한다.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인간의 죄성에서 말미암는다. 죄인 된 우리 안에는 불신과 불화의 영이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불신과 갈등이 만연한 이 세상을 치유하며 화해와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나뉜진 돌을 하나 되도록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엡 2:14).

5.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환기에 시대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개인의 구원과 신앙적 삶의 추구를 넘어 사회 속으로 침투해 왔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한글 보급, 학교를 통한 근대 교육 실시, 병원이나 사회적 기관 등을 통한 사회의식 각성, 사회 계급 타파, 3·1 운동이나 독립운동 등 사회를 깨우치고 근대 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주의적 활동을 잘 감당했다.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기독교는 민족에게 나아갈 방향과 사회 통합을 보여주는 대안 세력이 되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 근대화와 정치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공적인 책무를 다해 왔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다. 끝없는 불화와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건설하도록 보내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로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역할과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의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다.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더 나

아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을, 사회와 다른 사회를, 국가와 국가 간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갈등의 시대에 화해자의 모습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임재는 현존으로 이어지며 임마누엘로 경험된다. 이는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 공식이다. 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른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다.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갈등의 해결은 교회를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뤄진다. 교회는 선한 도구로서 세상과의 공감 지수를 높여야 한다. 갈등은 욕심과 단절이라는 괴물을 먹고 자라지만, 갈등을 화해의 용광로로 집어 넣는 것은 소통이고 배려이며 공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에 화해의 복음을 주셨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화해의 정신을 교육하고 나누며, 지역 사회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십자가를 세워 주신 까닭이다. 교회는 지역 갈등의 조정자와 화해자로 부름받았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공공성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 교단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이다. 통전적이라는 단어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이라는 의미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담고 있는 통합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장신대 김명용 총장은 이를 온전하다는 의미의 온 신학(Ohn Theology)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른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위는 바로 균형 잡는 중심이고 인간과 세상을 다 놓치지 않는 온전함과 포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명용 총장이 정리하고 있는 온 신학(통전적 신학)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랑과 은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를 가능하게 하며 세상과 역사에 대한 희망의 노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만족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를 섬겨야 하는 한국교회에 화해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다.

6. 나가는 말

1961년 8월 13일 이른 아침, 독일 베를린 시내 베르나워 거리(Bernauer Strasse)에 가시철조망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동독의 군인들이 동·서베를린의 경계선을 따라 철조망을 친 것이다. 자유를 찾아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베르나워 거리의 아파트들은 건물 자체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르는 경계 역할을 했다. 아파트 출입문은 동베를린 쪽으로 나 있었지만, 건물 뒷면은 서베를린과 바로 맞닿아 있었다. 철조망이 쳐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둘씩 높은 창문에서 뛰어내려 서베를린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동독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람도 있고,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생겨나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베르나워 거리에는 1884년부터 화해의 교회(The Chapel of Reconciliation)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었다. 그 당시 독일 여왕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서로 화해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운 것이다. 철조망이 설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이 화해의 교회에서는 매일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다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동독 당국은 군인들을 파견해서 교회 성도들을 얼씬도 못하게 했으며, 결국 1985년 교회를 허물어 버렸다. 교회가 허물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화해의 교회를 허물어버린 동독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화해의 교회는 그 자리에 다시 재건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화해의 교회이다.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화해자와 조정자, 그리고 소통자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0장 민족공동체와 화해

| 권용근 목사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터키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이다(참고 : 터키가 1.27로 1위, 우리나라는 0.72로 2위이다. OECD 국가 평균은 0.44인데 이 정도로 개선되면 1인당 GDP가 7%에서 최대 2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겪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에서 246조 원이 든다고 한다. 이 정도의 비용이면 국내 총생산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사회 갈등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밑바닥에는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등이 깔려 있다. 지역 갈등이 심하게 노출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동서의 갈등과 남북의 갈등이 있다. 동서 갈등을 대표하는 영·호남의 지역 갈등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 지도자들이 불을 붙여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처럼 되어 버렸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 갈등이 있다. 이는 우리 세대에서 꼭 풀어내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민족이 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한반도와 그에 따른 섬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민족이다.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다. 모든 자리마다 갈등이 있지만 남과 북의 분단 갈등은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 세대가 꼭 풀어야 할 숙제이다.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개입하여 화해를 이루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

1. 한민족 갈등의 뿌리

1) 역사적 요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갈등은 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AD 313~668년 사이 삼국시대 한반도 안에서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공조 및 경쟁을 하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후일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668-935년) 신라의 통일은 외세를 불러들여 통일을 이뤄 한반도의 기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라리 고구려를 축으로 삼국이 통일되었다면 한민족의 기상이 훨씬 더 크게 뻗어 나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시에 있었던 삼국은 교류와 공조도 했지만 심한 갈등 관계를 갖기도 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왕조는 후반으로 가면서 국력이 쇠퇴하여 여러 왕조로 다시 분열되어 후삼국 시대를 맺게 된다. 견훤은 백제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는 신라 왕족이었지만 고구려의 전통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후고구려라고 했다. 궁예의 부하로 있던 왕건은 궁예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궁예가 폭군으로 변하자 부하들이 그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세웠다. 왕이 된 왕건은 신라와는 친화정책을 쓰고 후백제와는 대립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왕건의 정책은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후백제는 두 나라와 모두 대립 관계를 갖다가 왕건에게 정복당했다.

왕건은 후삼국을 다시 통일하여 고려 왕조(918-1392년)를 시작하였으며 고려 왕조는 475년간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라의 통일보다 고려의 통일을 높게 평가하는데, 고려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발해,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를 포용했기 때문이다. 고려 왕조가 끝나고 등장한 조선 왕조는 태조 이성계(1392년)로 시작하여 27명의 왕이 왕위를 승계하면서 518년간 지속되다가 순종

(1910년)에 이르러 일본에 합병되었다. 조선은 건국이념을 세 가지로 내세웠는데 첫째, 사대교린주의를 채택하여 명나라에 대해선 중주국의 명분을 살리면서 문화와 경제적 실리를 취했고 일본과 여진에 대하여는 우호관계를 가지며 그들이 응하지 않을 때 무력으로 제압했다. 둘째는 송유배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여 정치, 문화, 교육은 유교적 체제를 이루었다. 셋째, 경제정책으로 농본민생주의를 채택하여 농업을 장려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취했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가 조선을 이끌어 가기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서양 선교사 알렌(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1885년)를 통해 기독교가 들어왔다. 조선 말기에 뜻이 있는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의 회생을 기도했지만 결국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다. 비록 조선이 일본에게 합병되었지만 기독교는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서양식 교육과 문물을 수용함으로 근대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제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감리교 목사인 이윤형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것이다.

2) 지역·문화·정치적 요인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왕조는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비슷한 음식과 경험을 나누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서적 유대를 갖기 때문에 친밀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씨족, 부족, 왕조가 형성되고 나라를 이루어 간다. 당시 한강 이북은 고구려, 후고려, 이남의 동쪽은 신라, 서쪽은 백제, 후백제로 왕조가 형성되어 발전했다. 나중에 신라, 고려, 조선이 통일 왕조의 모습을 가지긴 했어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구조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산과 강으로 나누어진 지역 구분은 정보의 호환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있었고 해석을 하는 것에도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 그 차이는 갈등의 중요 요인이 되었다.

지역 간의 갈등은 역사적, 지역적 요인도 있지만 정치적인 원인이 크다. 왕건은 그의 통치철학인 훈요십조에서 차현 아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원칙을 통해 호남 사람들의 진출의 기회를 제한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갖게 하고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후일 지역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정치인들이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표 몰이를 위

해 지역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대립시킴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영·호남의 대립 구도는 오늘날까지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투표 결과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됨보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물에게 표를 던짐으로 기형적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영·호남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당의 후보자에게는 90% 이상의 지지를 선언함으로 공산주의 또는 나치즘에서나 볼 수 있는 투표 성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 내며 일상생활 전반에 갈등 표출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남북의 갈등과 동서의 갈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겪으며 갈등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2.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의 말씀사역의 시작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 : 15)였다. 그가 말씀하신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한 내용이었다.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 : 23).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마 16 : 18).

그러면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로마의 황제가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다. 종종 로마 제국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말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강자의 평화이고 힘으로 눌러 말을 못하게 하는 침묵의 평화이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의 수혜자는 로마의 시민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로마 시민들을 위한 굴종의 봉사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인종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 밖에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방문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다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대답하셨다(마 12 : 50).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편주의적 원칙 위에 세워지는 지역과 인종, 민족을 넘어서는 나라의 개념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대원칙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보다는 기독교 제국을 실현하려 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교회는 세상 권력을 누리고 그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실현을 게을리하고, 갈등을 촉발시킨 경우도 있다. 실제로 교회가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도 하고 정복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기도 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영역이 커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면 교회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14 : 17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희락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다. 원래 사랑과 공의는 갈등 구조를 갖고 있다. 사랑이 강조되면 공의가 약화되고 공의가 강조되면 사랑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요 19 : 30)라는 선언을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과 나를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3. 민족공동체 화해를 위한 교회 사역

1) 유기적 세계관과 교회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산 너머에 있는 아이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산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달랐고 서로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일 년에 한 번씩 정월 대보름달을 보기 위해서 산 정상상을 향해 올라가면 산 너머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전에 싸웠

던 아픈 경험으로 인해 이미 그들은 우리 동네 아이들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 년에 한 번씩 치열한 싸움을 치렀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모두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날 우리가 가진 대립 감은 해소되고 친구가 되었다. 지금은 더없이 좋은 고향 친구로 남아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좁은 세계관 때문이었다. 산 너머 마을을 같은 지역으로 보지 못하는 좁은 세계관으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싸움을 했던 것이다. 조금만 넓게 보면, 같은 동향인데도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동서와 남북의 갈등도 서로를 한민족으로 보지 못하는 좁은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을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다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사회상은 성경에 기반을 둔 사회 통합이론으로, 기독교적으로 대응한 기독교 사회 운동가들의 유기적 사회상이 있고 반기독교적 사회 운동으로 투쟁하는 모습에서도 유기적 사회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강조된 사회주의적 계급 사상은 공산혁명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이며 시민계급적인 계약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가들은 기독교적 유기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따라 사회 운동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한 몸 안의 유기적 지체가 되어 생명적으로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약화는 노동자의 약화로 이어지는 원칙을 파악하고 노사의 정의로운 화해안을 갖고자 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 있고 교회의 사역도 이런 모습으로 화해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교회가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사회에서 화해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으로서의 유기적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유기적 모습과(organism) 조직적 모습(organization)을 갖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유기적 모습보다 조직적 모습의 성격이 강하다. 교회 안에 계층이 형성되고 계층의 갈등이 파생된다. 그러나 교회가 유기적 모습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갈등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 유기적 모습은 우리 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눈과 입, 손과 발은 모양과 역할이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기적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생명적으로 연대되어 있어 모든 지체가 아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수고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을 함께한다. 먼저 교회가 유기적 모습을 회복하

고 유기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유기적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유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 유기적 통일 한국을 위한 교회 사역

남과 북, 동과 서는 생명적으로 연대된 한민족이다. 그런데 남과 북이 단절된 지 70년이 되었고 동과 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남과 북은 그 관계가 단절되어 서로의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교회는 북의 아픔을 어떤 기관보다 예민하게 느끼며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결단에 따라 교회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내용들을 다음에서 논의해 보자.

먼저 교회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이를 나쁜 것, 다른 것으로 적대시켰다. 그러나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넓혀 줄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 운명체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서의 교회가 잦은 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회는 통일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디옥 교회는 다가올 흉년의 시간을 잘 준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 심한 흉년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등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행 11:28-30). 마찬가지로 남한의 교회도 통일 한국교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먼저 북한 선교를 위한 일꾼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북한에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며, 이미 북한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한의 교회는 북한의 공인된 교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지원은 전시성 협력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공인된 교회 간의 협력 차원을 넘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인권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동의 꿈을 찾아야 한다. 스위스는 구성 민족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다르지만 삶의 터전이 갖는 지역적 인접성과 공동의 꿈을 가짐으로 하나로 응집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이 함께 조합된다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더 개발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어느 정도 손해가 있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돕다 보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나 민간단체가 나선다면 국가 기관보다 훨씬 더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갈등 구조 속에 있지만 교회에게 부여된 화해사역을 잘 감당하여 갈등 지수를 낮춰 갈 수 있다면 교회는 한민족을 위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선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유기적 교회관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영역 확장식 사역은 지양되어야 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가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의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는 북한의 형편을 잘 살피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전개해 갈 때,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 세계 선교와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1장 생태 · 우주공동체와 화해

| 전중식 목사 |

1. 불편한 진실들

시인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시 19 : 1-6)라고 성서적 우주관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 : 20)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과 날이 그리고 밤과 밤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지구의 생태환경이 병들고 파괴되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은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류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

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귀착되고 피조물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불통함으로 피조물도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 : 19 - 22)

2. 파괴된 생태환경과 우주공동체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으로 각종 야채와 과일 그리고 농산물이 기형으로 출하되고 있음을 보도하는 인터넷의 내용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기괴 현상은 이미 공포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적 유익으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1/3을 상회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시설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공동체에 큰 갈등을 야기할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자니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할 것인데, 그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 시설을 마구 증설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모른 척하기에는 신앙적 양심상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원전에 대한 염려뿐인가? 과학의 발달로 누리는 온갖 편리한 것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편리함과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고 말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응서의 칼럼을 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떠서 해류와 바람에 의해 태평양 한가운데로 모여 쓰레기 섬이 되었다는 것인데, 199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요트 경주에 참가했던 한 선수가 갖가지 플라스틱 용기들이 모여 있는 쓰레기 섬을 발견했고, 15년 후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그 사이에 100배나 커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었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수거할 수라도 있지만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 쓰레기는 속수무책이다. 스티로폼이 해양 쓰레기의 37%를 차지하는데, 마모된 스티로폼은 플랑크톤과 갯지렁이처럼 퇴적물을 먹는 동물을 통해서 마침내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는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하고 아찔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죽은 바닷새의 소화관이 플라스틱 조각으로 가득 찬 충격적인 사진 속의 현실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오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부부 다섯 쌍 중 한 부부가 불임부부라고 하는데, 오래지 않아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극대화되면 조류 중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있는 독수리나 매가 멸종 위기를 겪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멸종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풀어야 할 신학적 숙제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태와 우주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 : 26 - 31a)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청지기 사명을 부여하셨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한 후, 하나님처

럼 되기는커녕 저주를 당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어지고 생애는 물론 우주공동체와의 관계가 갈등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며 죄의 삶이 사망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인 요한복음 3 : 16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셔서 사람만 구원하러 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텐데 ‘사람을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한 까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생애, 그리고 우주공동체와도 화해하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4. 생애는 물론 우주공동체와도 화해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 : 9)라고 말씀하셨다. 제1장에서 밝힌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유사한 단어인 ‘화평’, ‘화목’, ‘화해’,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갈등의 과정에서 보다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진 화해라는 단어로 이 단어들을 대체해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화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기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0회 총회의 주제 성구인 고린도후서 5 : 18-21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되, 특히 생애나 환경 그리고 우주공동체와 화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영혼 구원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명의 향기를 널리 두루 날리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자리매김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다(마 5 : 13-16).

시각장애인의 반려견으로 십수 년을 살아왔던 개가 수명이 다되어 병들어 죽어 갈 때 슬피 부르짖는 모습에 동물과 대화를 하는 전문가를 불러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지를 알아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개의 언어를 분별하는 전문가는 죽어 가는 개가 주인이 혹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주인을 돌보는 후임 반려견에게 상황을 파악해서 알려 달라는 것이라며 후임 반려견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니 편안하게 고개를 내리고 쉬는 것을 보았다. 동물과의 대화는 특별한 훈련을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한 꿈이나 사나운 짐승과도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할 뿐 권장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태나 우주공동체와의 화해를 권한다. 욥기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욥 12 : 7-12)라고 말씀한다. 짐승에게 뭘 어떻게 물어보라는 것인가? 짐승이 뭐라 한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반복해서 ‘물어보라, 가르치리라, 물어보라, 말하리라, 말하라, 가르치리라, 설명하리라, 어느 것이 알지 못하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은 물론 생태와 우주공동체와의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은 물론 환경과 생태 그리고 우주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화해의 방법을 적극 찾아내서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새번역, 욥 12 : 7-9)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신비한 곤충의 눈만 보더라도 첨단 기능이 있어서 수많은 겹눈을 가지고 레이더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개미는 6~9개, 집파리는 약 4,000개, 잠자리류는 10,000~28,000개의 겹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를 누리고 살고 있다. 곤충기로 유명한 파브르는 “파리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부러워했다고 한다. 하물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생애, 우주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문가지이다.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해석하고, 생태를 보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마 6 : 22 - 23)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세상과 생애, 자연과 우주공동체를 볼 때 우리 인생이 훨씬 윤택하고 행복하며 밝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도자 무디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사람이 되고 보니 태양과 바람이 다르게 느껴지며, 나뭇잎들이 춤추며 사랑한다고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어찌 무디뿐이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새사람이 되면 누구나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화해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여 선한 도구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다.

5. 생애와 화해된 우주공동체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 : 6 - 9)

이 모습은 세상을 창조할 때 묘사한 모습과 흡사하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의 모습, 즉 생태와 화해된 우주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 : 29 - 30)

이리가 가장 즐기는 먹이가 어린 양이고, 표범이 쉽게 잡아먹는 것이 어린 염소이거늘 그들이 함께 살고 함께 풀을 먹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애완견처럼 끌려다닌다니?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젓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 됨도 없고 상함이 없나니? 그런 꿈같은 세상이 피조물조차 구원받은 생태와 화해된 우주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회복되고 화해된 우주공동체의 모습을 이사야 35장에서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사 35장).

오늘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숲을 파괴하고 초지를 만들어 집단으로 기르는 소들이 뿜어낸 메탄가스로 지구가 오염되고 20여명의 사람이 먹을 곡물을 소에게 사료로 먹여 1인분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바람에 생태계가 더욱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바닥을 드러내는 석유와 한정된 물을 과하게 사용하는 행태로 말미암아 블랙홀마냥 모든 물

체를 집어삼키는 커다란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쯤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후손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건강을 위해 육식을 절제하고, 생태와 화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다짐하고 실천할 작은 삶의 모습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된 각종 두루미와 새들이 1,005마리나 찾아와서 월동하는 것이 포착되어 순천만이 천학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순천시가 내륙 습지와 갯벌을 복원하고 농경지 내 전봇대 280여 개를 뽑아내는 등 겨울 철새가 마음 놓고 찾는 1급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한 데 따르는 보답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사람들이 생태와 화해하고 우주공동체와 화해를 시도하면 생태나 우주공동체도 반드시 보답을 한다. 성경도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원리에 대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피조물이 춤추고 겨울의 진객 두루미가 성탄절 선물마냥 찾아오는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환경 단체나 생태학자들의 운동이나 프로젝트에 성경이 지지하고 허용하는 범위까지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생태와 우주공동체와의 화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 1) 목회자는 반복적으로 생태와 우주공동체와 화해를 시도하는 설교를 한다.
- 2) 교회 안에서라도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한다.
- 3) 교회에서 사용되는 각종 인쇄물의 양을 가능한 한 줄인다.
- 4)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밤새 켜둔 십자가 등불을 예배시간이나 집회가 있는 시간으로 한정한다.
- 5) 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이나 생태와의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고 후원한다.
- 6) 입이 덜 즐거워도 육식을 줄이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 7) 가능한 한 에너지(물, 전기, 자동차 등)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북극의 빙하가 점점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는 슬픈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북극곰이 사라진 후에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슬픈 예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 전까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여 생태, 우주공동체와의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요 10 : 10).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되 우리의 후대까지도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12장

화해의 성찬 · 성례전

| 주승중 목사 |

이번 제100회 총회를 위한 화해의 성찬 · 성례전은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예배의 성찬 예전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세례의 갱신 부분만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1. 세례의 갱신(Baptismal Renewal)

1) 초청의 말씀/ 인도자

화해자로 부름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그 당시 세례를 베풀 때 검증했던 아홉 가지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종의 동기가 순수한가,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는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술과 담배, 마약은 금지하는가, 일부일처제를 지키는가, 본부인과 지금 살고 있는가, 제사를 금하고 있는가라는 여덟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세례를 베푸는 아침에 세례 받는 사람의 동네에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난 뒤,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100회 총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귀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과연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 : 18 - 19)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주님,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 고백기도(Litany of Confession)/ 인도자와 회중

[1977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에서 발간한 「예식서」, 172면에 수록된 기도문이다. 여기에서는 목사로 된 부분을 인도자로 수정하였고, 부득이하게 첨가한 부분은 ‘*다 함께’로 표기하였다.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제 화해자로서 부족했던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자 :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선하시어 우리의 생활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용감한 제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세상으로 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회 중 : 아멘.

인도자 :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아름다움을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타산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비천하고 흉악한 것들과 상종하는 것으

로부터,

회 중 :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우리의 비겁함과 게으름, 오만한 생각, 거짓된 삶, 불성실함, 우둔함과 무례한 것과 이웃을 멸시한 것과 관용하지 못한 것과 형제들을 멸시한 것으로부터,

회 중 :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우리의 이기심과 방종과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한 모든 우리의 잘못을,

회 중 :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 화해의 기도/ 인도자와 회중

[1977년도판 「예식서」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총회주제 문구로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가 끝날 때마다 찬송가 631장 “우리 기도를”〈통 549장〉이나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부르도록 한다.]

화해자로 부름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에 힘입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 마음을 다해 화해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1) 중보의 연도(Litany of Intercession, 「예식서」, pp. 173-175.)

*다 함께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의 요구를 간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회 중 : 아멘.

인도자 :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선을 위하여 협동하게 하옵소서.

회 중 : 모든 만물이 당신을 찬양케 하옵소서.

인도자 : 당신의 몸 된 교회가 이 땅 위에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복의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회 중 : 오 주님이시여, 교회가 항상 당신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인도자 :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당신에게 등을 돌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 중 : 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인도자 :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무장을 해제시키며, 총소리를 잠잠케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회 중 : 오 하나님,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인도자 : 우리는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들의 이웃이 되어 같이 고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 중 : 오 주님이시여,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보살피 주시옵소서.

인도자 : 우리는 버림을 당하여 쓸쓸하고 고독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회 중 : 오 하나님,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양친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옵시고 서로가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주님을 모시어 이웃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회 중 :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자 : 우리는 젊은이와 늙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급한 젊은이들에게
는 진실된 이상을, 늙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을 주서
서 두 세대가 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옵소서.

회 중 : 오 하나님, 젊은이와 늙은이의 몸과 마음이 연합하게 하소서.

인도자 :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만주의 주시며, 세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회 중 :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
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함께 : 아멘.

찬송가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2) 교회를 위한 연도(Litany of the Church, 「예식서」, pp. 178-179.)

*다 함께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음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되어 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회 중 :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찬양을 돌리옵니다.

인도자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계승하며, 당신의 백성을 노예의
생활에서 출애굽 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법을 세워 주신 모세에 대
하여,

회 중 :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상의 예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낸
예언자들에 대하여,

회 중 :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의 탄생의 길을 예비한 이들에 대하여,

회 중 :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회 중 : 오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 참으로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오늘날 우리가 복된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치신 사도들과 순교자들에 대하여,

회 중 : 오 전능의 하나님,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회 중 : 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당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선포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

회 중 : 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인도자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 택함을 입고 세워졌으며 축복을 받아 연합한 당신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당신의 유익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회 중 : 우리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옵니다.

인도자 :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지어다.

회 중 :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3) 세계 평화를 위한 연도(Litany for World Peace, 「예식서」, pp. 180-181.)

*다 함께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국가, 민족들이 한 언어와 사상과 피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구원에 장애가 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회 중 : 아멘. 할렐루야.

인도자 : 전쟁을 유발시키는 모든 악과 당신을 배반하는 자만심으로부터, 당
신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으로부터,

회 중 : 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애국심으로 가장하는 국가적인 허영과 자기 숭배와 타협을 거부하는
독선과 남을 억누르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기심으로부터,

회 중 :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전쟁의 무기를 믿고 평화적 회의를 불신하며, 불화와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는 언행과 평화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 중 : 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평화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회 중 :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인도자 :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하소서.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오니 모든 민족이 당신의
사랑의 지배하에서 살 날이 어서 임하게 하시옵소서.

회 중 :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4) 국가를 위한 연도(Litany for the Nation, 「예식서」, pp. 182-183.)

*다 함께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은 당신의 것이며, 민족들도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교만심과 악한 마음을 정하게 하사 당신을 모시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

회 중 : 아멘. 할렐루야.

인도자 : 아름다운 산과 들, 흐르는 강물, 우거진 숲들, 오곡이 무르익은 농장과 오손도손 모여 살고 있는 마을들에 대하여,

회 중 : 오 능력의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돌리옵니다.

인도자 :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드는 공장, 상점, 또는 학교에서, 또한 서로가 대화하며 정을 나누며, 함께 일하며 안식하는 곳, 도시에 대하여,

회 중 :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인도자 :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서 민족들이 흥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섭리에 의해 튼튼도 해지며 또 시들기도 합니다. 모든 회개하는 자와 국가에 크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회 중 :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인도자 :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하만국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회 중 :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5) 노동자를 위한 연도(Litany for Worker, 「예식서」, pp. 173-175.)

*다 함께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나이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옵소서.

회 중 : 아멘.

인도자 : 밭을 가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우주
를 탐험하는 사람,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 출판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며 가르치는 사람들
을 위하여,

회 중 : 오 공훈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일하시옵소서.

인도자 : 자기가 하는 일로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
람들, 거의 여가를 가지지 못하고 휴가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들, 저임금을 받고 중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하기를 원하나
일자리가 없어 고민을 하고 있거나 헛되이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
부당 이득자들, 강탈자들, 탐욕자들을 위하여,

회 중 : 오 사랑과 공훈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공훈과 은총과 구원
의 능력을 간구하옵나이다.

인도자 :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항상 당신을 위하여 열
심히, 부지런히 일하게 하옵소서.

회 중 :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631장 “우리 기도를”(통 549장)

2. 성찬 · 성례전

1) 화해의 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 : 사도신경(Apostle's Creed)

화해자로 부름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께 고백한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참된 화해의 영이 시며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성찬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2) 성찬 감사기도(Prayer for the Holy Communion)/ 다 함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희로애락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공생애를 보내시며 우리 주님은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면서 화해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죄인 된 우리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드립니다. 이제 모든 민족

과 나라에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분을 회상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담대히 나아가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찬 감사기도 후, 찬양대는 미리 준비한 찬양 “여기 오소서”를 부르도록 한다. 이 찬양은 대표적인 흑인영가 중의 하나로, 원제는 “쿰바야(Kumbayah)”이다.]

찬양 “여기 오소서”

3) 성찬 제정의 말씀(Word of Presentation) : 고린도전서 11 : 23 - 26/ 집례자

[가능하면, 로스번역본 1887년 「예수성교전서」 원문을 함께 수록해 놓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 떡과 잔에 해당되는 구절을 읽을 때 준비된 성물을 높이 올려 보여 주도록 한다.]

여기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기쁨의 식탁이며, 참된 화해의 잔치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11 : 23 - 26 말씀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찬성례전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귀 기울여 들어 봅시다.

원문음역/ 내가 너에게준바난 주의게 바든거시니 곳 주 예수 팔니우는 바음
에 떡을 취하여 축슈하고 떼여 갈오샤대 이거슨 내의 신테이 너희
랄 위한 거시라 너희 이랄 행하여써 나랄 생각하라 하고 먹은후에
또한 잔알 이갓치 하여 갈오샤대 이 잔은 신약이니 내의 피로써 서
운겨시라 너희 마실때마당 행하여써 나를 생각하라 하여사니 너희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알 마실적마당 주의 죽으물 표명하여써 그님
하메닐을지라

개역개정/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
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
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찬양 “여기 오소서”

4) 권면의 말씀/ 집례자

이 성찬은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화해의 피를
흘리신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
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분병분잔(Sharing Bread and Wine)과 성찬 참여

[칼빈의 성찬 전통에 따라 회중들이 성찬위원 앞으로 나가서 받을 경우에는
집례자, 성찬위원, 회중 순으로 떡과 잔을 받는다. 이때, 떡을 포도주에 찍어
먹을 수도 있다. 앉아서 성찬을 받을 때에는 회중-성찬위원-집례자의 순으로
하고, 기다렸다가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집례자와 분병위원 : (떡을 나누며)이것은 우리를 화해케 하신 주님의 몸입
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와 분병위원 : (잔을 나누며)이것은 우리를 화해케 하신 주님의 보혈입
니다.

회 중 : 아멘.

[성찬 참여 찬송은 반복하여 “여기 오소서”를 부르도록 한다.]

찬양 “여기 오소서”

6) 시편찬송(Hymn on Holy Communion)/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통 453장, 시편 23편에 평양 태생 작곡가 장수철 선생의 곡〉: 시편 가사이면서 국내 작곡가의 찬송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

7) 성찬 후 감사기도(Prayer after Holy Communion)/ 집례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4년 한국 선교 20주년 기념식장에서, 자기 말로는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대신하였던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 118 : 23-24)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72 : 19)

우리를 화목케 하신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의 참된 평강을 맛보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신음하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 화해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8) 시므온의 노래 :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통 62장)/ 다 함께

[영국인 조지 헬프턴(George Whelpton, 1847~1930)이 누가복음 2 : 29-32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Nunc Dimittis 님크 디미티스)의 가사를 줄여 폐회찬송으로 만든 것이다.]

[다음의 두 찬송가도 가사의 의미가 총회 총대들에게 잘 부합되는 파송의 찬양이다.]

찬송가 444장 “갯세마네 동산에서”(작사자 한경직 목사, 작곡자 박영근 교수)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통 272장)

9) 아론의 축도(Benediction)/ 집례자

화해자로 부름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께 봉사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 : 24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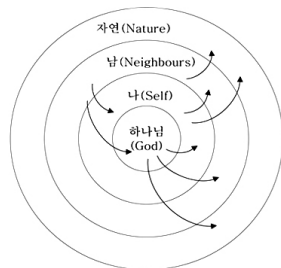
제13장 화해를 위한 갈등 해결 방법

| 오상열 목사 |

국어사전에서 화해(和解)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풀”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화해’를 나타내는 영어 ‘reconciliation’은 라틴어 ‘conciliatu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함께 오다’ 또는 ‘같이 모이다’라는 뜻이다. 국어사전이나 영어 어원에 따르면 화해는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즉, 화해는 서로 헤어지고 나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함께 걷기 시작하는 행동이다. 본질적으로 화해는 갈등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해는 갈등 해결보다는 그 차원과 의미가 더 높고 심오하지만, 갈등 해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히즈키아즈 아세파(Hizkias Assefa)는 네 가지 차원에서 화해에 접근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는 ‘자신’과의 화해, 세 번째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와의 화해, 네 번째는 자연과의 화해이다.

히즈키아즈는 화해의 네 가지 차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화해로서의 평화는 개인, 사회, 그리고



화해에 대한 네 가지 차원의
신학적 개념

자연을 통합하며, 단순히 분쟁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삶과 인간관계를 인식하는 통합적 인식체계, 즉 패러다임이 됨을 강조한다. 둘째, 다양한 차원의 화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셋째, 화해로서의 평화와 평화 건설이 상당히 많은 영적 차원을 보여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화해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이 글에서는 화해의 세 번째 차원인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화해, 사회 전체와의 화해로 한정하고 영적인 차원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갈등의 개념과 갈등 용어의 변화

한자어 갈등(葛藤)은 칩과 등나무를 뜻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칩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감으로 서로 방향이 다른 것이 엉켜 복잡하게 된 상태이다. 또 2011년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영어사전에 보면 갈등을 뜻하는 Conflict는 “(~과 ; ~의 점에서) 충돌(대립, 상반)하다, 모순되다”로 정의되어 있다. 조승연의 오리진보카 블로그에서 Conflict는 서로를 뜻하는 Con과 채찍으로 후려치다를 뜻하는 fligere가 합성된 것으로 서로 치고 받고 때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제공한 갈등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상태이다.

갈등 해결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갈등 해결과 관련된 용어가 꾸준히 변화를 겪어 왔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사용하는 단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의 발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갈등 관리, 갈등 해결, 갈등 전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용어의 변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 관리의 목표로서 사태의 혼란을 막고 있는 것을 함축한다. 갈등과 갈등의 표현이 수용할 만한 한계 내에서 유지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도록 혹은 너무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깊은 문제들이 강조되어야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일들을 그럴듯하게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많은 경우,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기 위해 문자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우리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갈등 관리는 또한 누가 표준 혹은 수용할 만한 한계를 정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덧붙여, 갈등 관리는 갈등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함축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패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갈등의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하며 조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진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 인간은 조종할 수 있고 조종해야 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넘어서서 행동한다.

갈등 해결이라는 말은 갈등을 종료하고, 결말을 짓고, 안보이게 밑에 밀어 넣을 필요를 촉진한다. 해결은 심지어 목표로서 갈등의 부재와 제거를 함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구체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갈등을 완벽하게 종료시키는 것이 좀처럼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갈등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정확히 갈등의 투쟁 속에서, 투쟁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관계에서의 긴장 속에서이다.

1980년대 무렵부터 갈등 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접근법은 갈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한다. 해결은 대부분 갈등의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관리는 과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방법을 발견한다. 전환이라는 개념은 좀 더 갈등과 관련된 사람과 서로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에 크게 초점을 맞춘다.

갈등 전환의 선구자인 존 폴 리더락(John Paul Lederach)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 이면에 있는 관계 패턴과 맥락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갈등 전환은 갈등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응급처방에 만족하지 않고 내용, 상황, 구조를 다층적으로 다루기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동성으로 인식되며 더 나아가 갈등은 건설적인 면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갈등이 상처와 파괴, 폭력의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갈등 전환은 갈등 자체를 잠재적 성장의 기폭제로 바라보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갈등 전환의 개념이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데다.

따라서 갈등 관리에서 갈등 해결, 갈등 해결에서 갈등 전환으로의 용어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 갈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여부에 따라 갈등은 기회가 되거나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과 화해로서의 평화 건설과 갈등 해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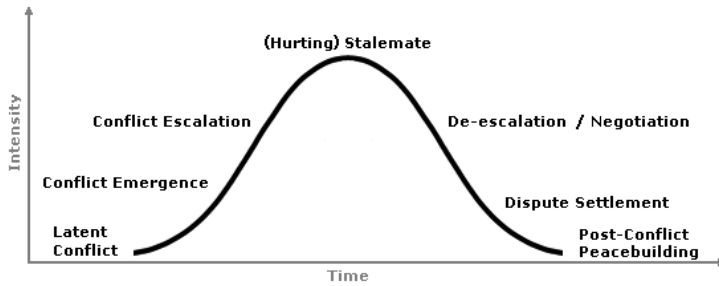
2. 갈등 해결의 방법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요소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성서를 통하여 갈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영성적 측면을 배울 수 있다면, 지식과 기술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사회과학적 방법의 도움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적 방법의 목적은 사회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현상과 그 해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 현상 속의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 즉 규칙성을 이론화하고 법칙으로 일반화한다. 또한 사회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방법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법(skills)과 통찰력(insights), 그리고 도구(tools)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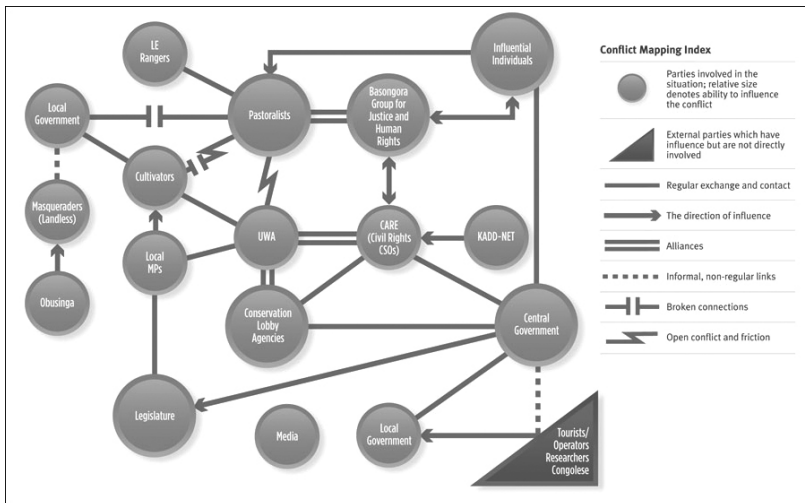
이 짧은 글에서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에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갈등 분석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갈등 분석 기법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등 분석 기법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영성적 측면과 상호 수렴되고 영성을 통한 갈등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갈등 분석 기법 네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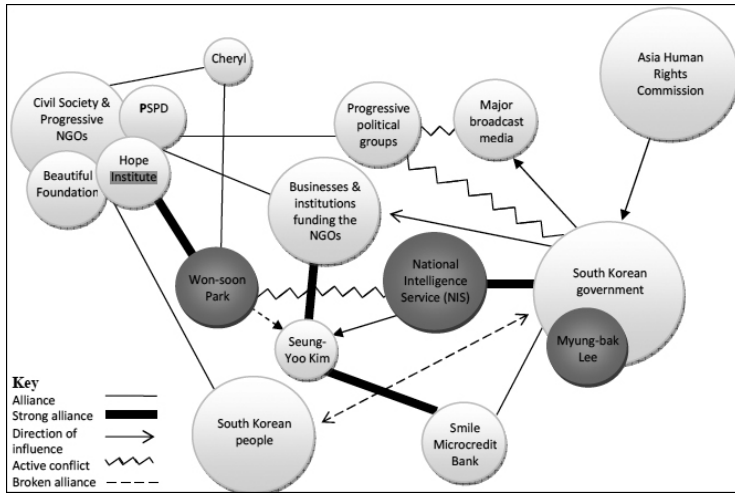
첫째는 갈등의 5단계(five-stages of conflict) 파악 기법이다.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동성(activity)과 강도(intensity), 긴장감(tension), 폭력 상태(violence)라는 차원의 각각 다른 정도와 단계들을 거치면서 변화해 간다. 따라서 갈등의 5단계 기법은 특정 시간대에서 갈등의 강도(intensity)가 강화되고 약화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며 분석하는 것이다.

갈등의 5단계는 1단계인 갈등 전 단계, 2단계 대치 국면, 3단계 위기 국면, 4단계 결말, 5단계 갈등 이후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의 5단계 기법을 통해서 각 단계의 역동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해결이나 개입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전체적인 갈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둘째는 갈등 지도(conflict mapping) 기법이다. 이 기법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성격(협력적 · 비적대적 · 적대적) 및 힘의 균형 등을 보여 주는 지도를 그림으로써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다. 갈등 지도를 그리는 목적은 갈등에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권력의 소재 파악, 각 당사자들의 활동이나 접촉면의 상태 점검, 같은 편 또는 동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파악, 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과 개입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 파악, 이미 진행된 일들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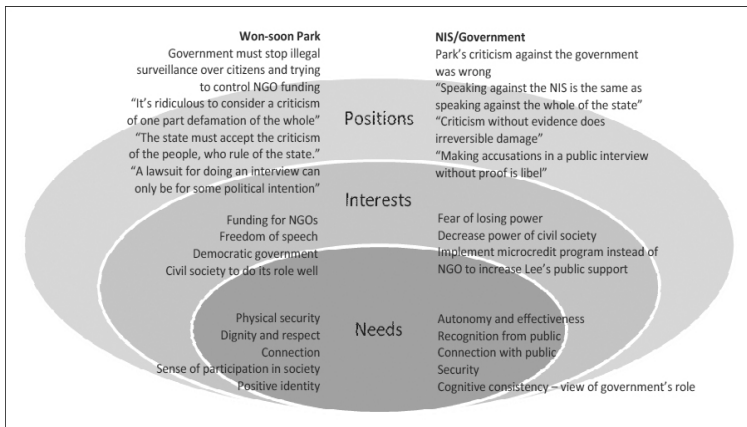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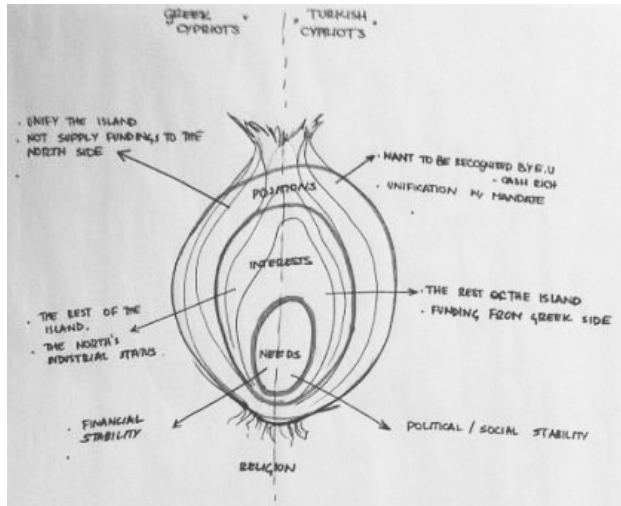


셋째는 양파 기법이다. 양파 기법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양파는 껍질 속에 내용물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벗겨 내도 그 속에 또 다른 내용물이 있다. 양파의 이런 속성처럼 갈등의 표면에 드러난 공식적인 입장(Position) 속에 있는 실익(Interests)과 욕구(Needs)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목적은 실익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들 간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입장(Position) : 어떤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실익(Interests) : 목표, 이익 등 당사자가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입장’ 아래 놓여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욕구(Needs) :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당사자의 실존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연대표(Timelines) 기법이다. 이 기법은 연대기 순으로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을 나열하고 대비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이들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의 목적은 갈등의 역사에 대한 각각 다른 관점들을 보여 주기, 발생 사건들에 대한 각각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이해하기,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 가	연 도	시민사회
·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 경기 침체 · 주요 대중매체 경영자 사임, 새 경영자들이 이명박 정부 정책 지지	2009	· 박원순 소송 사건 · 정부의 불법적인 시민 사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명박 정부의 검찰조사 결과 ·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 한미 FTA 협상 성공	2008	· 한미 FTA 반대 시위
· 이명박 대통령 당선, 경제개혁 약속	2007	· 강한 야당 후보자 부재로 권력 상실
· 부시 미행정부, FTA 협상과 이라크 파병 압력	2006	·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행 실패, 반대를 무릅 쓰고 이라크에 파병
· 노무현 대통령 선출	2002	· 청년세대 투표참여, 높은 투표참여율로 노 무현 대통령 선출
·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개선 촉진	2000	·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개선 촉진
· IMF 위기, 김대중 대통령 선출	1997	· 정치범 전력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 선출
· 김영삼 대통령 선출, 주요 민주화개혁 실행	1992	· 시민사회단체, “정체성의 위기”를 겪다.
· 서울 올림픽 개최	1988	· 민중 및 시민운동집단 증가
· 김대중, 김영삼의 독자 출마,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 노태우 대통령 선출	1987	· 분열로 인해 야당의 대권 상실
· 전두환 대통령의 대통령 직접선거제 수용	1985	· 대규모 노동쟁의 발생 · 시민사회와 정치계의 연대로 구체제 종식 ·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 결성
· 정치적 긴장 완화 · 큰 폭의 경제 성장	1983	· 학생, 노동자, 교회의 사회운동 증가
· 전두환, 계엄령 선포	1980	· 광주항쟁-대량학살 발생
· 전두환 중앙정보부 장악 ·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암살	1979	·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쟁의 증가 · 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적 탄압 · 노동운동이 힘을 얻다.
· 박정희,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승리	1971	
· 경기 침체, 성장률 둔화	1970	· 중앙정보부를 통한 정부의 억압
· 빠른 경제 성장 · 한일관계 정상화	1965	· 한일협정 체결문제로 시위발생
· 박정희 주도 군사쿠데타 · 중앙정보부 창설(현 국정원)	1961	· 박정희 정권, 민주정치단체, 진보적 시민단 체 결성금지
·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60	· 4·19혁명-국가보안법남용과 선거부정에 대 항한 학생시위
· 한국전쟁(1950-1953)	1950	· 한국전쟁(1950-1953)
· 대한민국 건국, 초기 대통령 이승만	1948	· 이승만, 보수적이고 반공시민단체만을 지원
· 미군정 통치	1945	· 미군정의 억압통치
	1919	· 3·1 독립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
·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1910	·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3. 나가는 글

몇 가지 갈등 분석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히즈키아즈에 의하면,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처하는 ‘땀질’ 식의 해결 기술이 아니라, 갈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갈등 전환적 해결 방법은 가치와 규칙이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통합적이고 인도적인 사회 질서를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분석, 이해하는 조절의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해는 갈등을 해결하며 화해의 과정을 창조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갈등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의 가치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규명되고 다루어지지 않는 한 갈등은 전환될 수 없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의 함축적 의미는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뿌리에 놓여 있는 갈등 당사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실체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들까지도 반드시 분쟁 해결 과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표면적 문제 이상의 더 깊은 필요가 채워져야 하고,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의와 평화를 함께 추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 없는 평화는 의미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당사자들-갈등의 간접 당사자들-을 분쟁 해결의 과정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에 근거하여 공통의 이해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갈등 상황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양측 모두 받아들일 만한 공정한 해결책을 스스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통의 이해와 목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찾으면 좋지만, 그것이 힘들 때는 중립적인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다. 갈등 당사자들이 인

간의 기본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풀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넷째,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인간관계 설정은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명령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위계질서에 의해 형성된 상하의 관계에서 평등, 참여, 존중, 상호 번영, 그리고 성장에 의해 형성되는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5 : 18-21, 창세기 33 : 1-4)

| 채영남 목사 |

1912년 9월 평양의 장로회신학대학교 강당에서 7개 노회가 모여 제1회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열린 후, 2015년 9월은 본 교단 제100회 총회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금년은 선교 130주년,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교회에게나 민족에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민족은 국권 상실과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분단된 남북 간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55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와 일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말에 권위주의적인 정치와 경제적 빈곤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격랑 속에서도 우리 총회는 참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통해 오늘날에 65개 노회와 8,592개 교회, 그리고 2,891,200명의 성도를 이루었으며, 이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시다.

제200회 총회를 맞이할 향후 100년은 또 다른 도전과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고, 통일 이후 민족 통합을 위

해 치러야 할 대가는 클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으로 인해서 다민족·다언어·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교회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제100회 총회에 즈음하여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100회 총회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화해’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눅 12 : 56). 이 시대는 우리에게 화해를 위한 사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34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사회 갈등 지수가 두 번째로 높지만, 사회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비용이 GDP의 27%인 3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셈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남북 간에 진정한 화해가 없이는 평화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간, 세대 간, 노사 간, 정치 이념과 정책 간, 이해집단 간, 남녀 간, 가족 간, 학교 내, 종교나 교파 간, 여타 생명체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폐해가 큼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갑과 을 간의 갈등까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마다 40건에 가까운 소송이 총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 줍니다.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몇 년에 걸친 갈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수백 명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총회 내에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화해를 중재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한국사회나 교회의 갈등 관리능력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건전한 공동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금번 제100회 총회에 특별사면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도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를 이

루기 위함입니다. 제1회 총회부터 제100회 총회까지 책별받은 자들 중에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사면하는 법을 만들어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 : 16)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 : 22)

현 시대에는 ‘화해’의 영성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신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가정, 교회, 사회, 민족, 전 피조공동체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100회 총회 총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이고 국제적이며, 생태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화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셨습니다(요 1 : 1-4).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창 3 : 19). 인간만이 아니라 땅마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창 3 : 17). 끝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창 4 : 8).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창 6 : 5).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사나 왕, 제사장과 예언자를 보내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 : 18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존재의 뿌리는 하

나눔께 있습니다. 본질상 선하고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칼빈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피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역을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세계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온 피조세계가 질곡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하나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알게 하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화해에 대한 이해는 바울의 독특한 이해입니다. 신약성경에 화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화해를 구원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화해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본연의 존재로 회복되는 매우 큰일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청지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피조물과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회복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고후 5 : 17)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에서 고난 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과 같습니다.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것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in Christ)’에서 재창조를 경험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화해의 대리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화해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세상의 화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고후 5 : 20) 세상과 화목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여러분,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사회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3장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드라마틱한 화해의 사건을 보여 주십니다. 야곱과 라반(창 31장), 요셉과 형제들(창 45장)의 이야기와 함께 극적인 화해를 보여 주십니다. 창세기의 세 이야기는 모두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재산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창 31장), 이익을 탐하여 형제를 기만함(창 33장), 부모의 편애로 인한 자식들 간의 질투(창 37장) 따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게 됨을 보여 줍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압목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이전에는 종과 가족을 앞세우고 맨 나중에 따라갔지만, 이제는 가족들 앞에 서서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형에게 화해를 구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형의 종처럼 여기면서, 일곱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형에게 너그러움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재산을 형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존심도, 두려움도 버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간절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본 순간, 원한과 원통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백 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던 그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33 : 4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예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형제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화해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참된 화해가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화해를 구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총회가 화해의 땀과 눈물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의 화해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피조물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롬 8 : 19-22).

이처럼 자연과 우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 : 15)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생태환경은 병들고 파괴되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모트 스티로폼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유령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섬은 해양 쓰레기의 37%나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있는 인간도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없어지고, 주변지역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만 명이 사망한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도 원전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앞으로 일만 년도 넘는 세월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한 생활을 즐겼지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결과는 끔찍

합니다. 인류는 편리함과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생태나 환경 그리고 우주공동체와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 1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온 땅을 향해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고는 부분적인 개선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한 것과 같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뱉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사 11 : 6-8)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사 11 : 9)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자연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해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도, 인간 간의 화해도, 자연과의 화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롬 8 : 26).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제100회를 맞이하는 성 총회의 총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제100회 총회라는 기념비적인 총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00회 총회를 향한 100년은 또 다른 도전과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

다. 낭만적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쓰나미처럼 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IMF 사태나 서브프라임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생태 위기의 삼중고가 한 번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과 결혼의 순결함을 보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한국교회 또한 교세가 줄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되게 간구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본 교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이하게 일신의 안일만을 구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성장과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화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화해의 사도가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화해를 이룹시다

(마태복음 5 : 24, 에베소서 2 : 14, 요한1서 4 : 7-8)

| 정현교 목사 |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 마디로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에게 끔찍한 악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조차 믿을 수 없고 조심해야 되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주거지가 다른 20대 남녀 4명이 만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 놓고 세상을 하직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커녕 학대받고, 쫓겨나고, 밀려나서 살 수가 없다고 삶을 포기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찬송가 503장(통 373)의 가사처럼,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 냉랭하고,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 탄식 소리로 가득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재산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흡족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담고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1서 4 : 7-8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1서 4 : 8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1서 4 : 9-10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속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1서 4 : 11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의 종이 되어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추락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에 사랑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려면, 먼저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업자, 노숙자, 노인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아 놓은 채 홀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형제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를 살핀 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2.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화해하자. 하나 되자. 사랑하자.

로마서 5:8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회개하지도 못한 채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

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후에 상대방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에 의지해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 23-24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 : 14-16).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막힌 담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서로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요, 형제가 되

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미워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해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화해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 총회주제〉

- 제58회 1973년 선교하는 교회
- 제59회 1974년 선교하는 교회-교회개혁의 해
- 제60회 1975년 선교하는 교회-계속 300교회 개척
- 제61회 1976년 교회신설과 개척-매년 300교회 목표
- 제62회 1977년 교회성장과 개척
1. 구체적인 교회성장 및 개척 세미나
 2. 교회성장을 위한 자료제공
 3. 교회신설과 개척의 강화
 4. 매년 300교회 목표달성 추진
 5. 폭넓게 개혁하는 교회
- 제63회 1978년 한국을 위한 교회
1. 사회개발과 선교권 강화
 2. 교회개혁과 평신도훈련
 3. 교회성장과 신학교육 강화
- 제64회 1979년 세계를 위한 교회
- 제65회 198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정의, 일치, 복음화, 평화
- 제66회 1981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로 1 : 15)
- 실천목표
1. 교회성장과 협력
 2. 개척전도와 선교
 3. 성서교육과 경건
 4. 사회정의와 참여
- 제67회 1982년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마 8 : 7)
- 실천목표
1. 교회성장과 일치
 2. 교회갱신과 치유
 3. 100주년사업의 적극 참여
- 제68회 1983년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 9 : 31)
- 실천목표
1. 100주년사업의 완성
 2. 5천 교회와 150만 성도 달성
 3. 적극적인 사회봉사
- 제69회 1984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 : 1)
- 실천목표
1. 100주년의 해
 2. 개척교회 목표 달성의 해
 3. 국제선교운동 착수의 해
- 제70회 1985년 세계를 향한 교회(행 1 : 8)
- 제71회 1986년 역사를 새롭게 하는 교회
- 제72회 1987년 정의, 평화, 일치를 향한 교회
- 제73회 1988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제74회 1989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공의, 사랑, 겸손
- 제75회 1990년 선교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행 1 : 8)
- 제76회 1991년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약 1 : 18)

- 제77회 1992년 선교 · 통일 · 평화
- 제78회 1993년 시대에 앞장서는 교회(시 34 : 14)
- 제79회 1994년 새롭게 하는 교회(행 21 : 7-14)
- 제80회 1995년 세계와 함께 나누는 교회(사 40 : 9-11)
- 제81회 1996년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 2 : 14)
- 제82회 1997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 : 17)
- 제83회 1998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마 8 : 7)
- 제84회 1999년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딤후 1 : 1)
- 제85회 2000년 임하소서, 성령이여!(행 1 : 8, 엡 4 : 2-3)
- 제86회 2001년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고후 13 : 13)
- 제87회 2002년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롬 14 : 17 하)
- 제88회 2003년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 51 : 10)
- 제89회 2004년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 : 9-12)
- 제90회 2005년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 40 : 1)
- 제91회 2006년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사 51 : 17, 롬 13 : 11)
- 제92회 2007년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요 10 : 10 하)
- 제93회 2008년 섬겨야 합니다(갈 5 : 13, 전 11 : 1)
- 제94회 2009년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8 : 29, 시 37 : 4)
- 제95회 2010년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신 6 : 4-9, 마 28 : 18-20, 행 2 : 17)
- 제96회 2011년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마 5 : 13-16, 벧전 2 : 11-12)
- 제97회 2012년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부 제 1. 가난한 이들의 벗 2. 다음 세대의 벗
3. 장애인의 벗 4. 다문화가족의 벗
5. 북한동포의 벗
- 제98회 2013년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막 10 : 45)
- 제99회 2014년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마 5 : 3-12, 창 12 : 1-3)
- 부 제 1. 복음의 재발견 2. 복음의 삶
3.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 제100회 2015년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 : 18-21, 창 33 : 1-4)

※ 제58회 총회 이전에는 주제가 없음.